

13



GUESS (**W/HO**) 'S BACK?
AND FOR **M**) Y LAST TRICK

Recently Released

Full-Length Album Review

Classic Album Review

Featured

Editors' Picks

20240812





W/HOM#13



ALL IMAGE RIGHTS BELONG TO THEIR RESPECTIVE OWNERS.
매거진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는 해당 소유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Recently Released

AyooLii, FearDorian & POLO PERKS <3 <3 <3 - <A Dog's Chance>
Your Old Droog - <Movie>
cupcakKe - <Dauntless Manifesto>
Amaarae - <roses are red, tears are blue — A Fountain Baby Extended Play>
Hiatus Kaiyote - <Love Heart Cheat Code>
Omar Apollo - <God Said No>
Ken Carson - <A Great Chaos (Deluxe)>
Autumn! - <You Never Was Mine>
Blu & Evidence - <Los Angeles>
Rich The Kid - <Life's a Gamble>
midwxst - <BACK IN ACTION 4.0>
Blxst - <I'll Always Come Find You>

Full-Length Album Review

Lupe Fiasco - <Samurai>
Megan Thee Stallion - <MEGAN>
Boldy James & Conductor Williams - <Across the Tracks>
James Blake & Lil Yachty - <Bad Cameo>
Eminem - <The Death of Slim Shady (Coup De Grâce)>
Common, Pete Rock - <The Auditorium Vol. 1>
Childish Gambino - <Bando Stone and The New World>
Denzel Curry - <King Of The Mischievous South Vol. 2>

Classic Album Review

Portishead - <Dummy>
Travis Scott - <DAYS BEFORE RODEO>

Featured

AAA - All About The Alchemist
Don't Hurry, Don't Be Dumb(돈비덤 기다리기)
힙합 속 컬러리즘

Editors' Picks

Iceage - <You're Nothing + 2>
Los Campesinos! - <All Hell>
Remi Wolf - <Big Ideas>
Vylet Pony - <Girls Who Are Wizards>
Porter Robinson - <SMILE! :D>
White Ward - <Love Exchange Failure>
Cigarettes After Sex - <X's>
RAY - <Green>

AyooLii, FearDorian & POLO PERKS <3

<3 <3 - <A Dog's Chance>

2024.06.21



죽이 잘 맞는 친구들끼리는 무엇이든 재밌다. 피어도리안(FearDorian), 폴로 퍽스(Polo Perks), 아유리(AyooLii)로 이루어진 트리오의 즉흥적인 유쾌함이 <A Dog's Chance>를 관통한다. 그들의 막무가내에 너지는 여러분을 무아지경으로 춤추게 만들다가 눈 깜짝할 새에 파티가 끝나있다고 느끼도록 만들 것이다. 짧고, 단순하며, 빠른 그 광란의 파티는 차분함과 현란함 사이를 오가며 우리에게 나긋함과 황홀함을 함께 선사한다. 이 문장은 작품의 매력을 축약하는 표현이자, 동시에 트리오 각각의 멤버들을 필두로 하여 근래 인터넷 랩 문화에서 가장 핫하게 성장하고 있는 온갖 장르와 사운드들을 한 번에 종합한 표현이기도 하다. 플러그 뮤직은 물론이고, 저크(jerk), 밀워키의 로우엔드 및 바운스 등 말이다. 물론 폴로 퍽스의 경우 본디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이었던 어두운 샘플 드릴 사운드를 잠시 양보하고, 더 쾌활하고 가벼운 풀(pool)에서 뛰어놀기로 했다. 즉, 이번 작품에서만큼은 셋 모두가 아무런 고민 없이 단지 마음껏 즐기기로 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본작을 들을 때만큼은 어렵게 들을 필요가 전혀 없다. 그저 미친 듯이 즐기자!

TRACKS

1. RAINBOW / 2. They Love AyooLii / 3. Skatepark / 4. Maz G Interlude / 5. Ricky Eats Acid / 6. TONY SNELL / 7. ROCKBAND TEES 08 DENIMS (Feat. Current Joys) / 8. ANSWERS / 9. Pinky / 10. PaperPlanesSoulja (Feat. AyooLii) / 11. BREESHWRLD / 12. Carissa's Weird / 13. BackPack / 14. BeNice2Me / 15. Alicia Keys / 16. Left RIGHT

by Editor 감상주의

RECENTLY RELEASED

Your Old Droog - <Movie>

2024.06.21



우크라이나 출신의 드럼리스 래퍼 유어 올드 드록(Your Old Droog, 이하 YOD)은 지난 10년 동안 20장 이상의 솔로 앨범을 발표하며 탄탄한 커리어를 쌓아왔다. 그런 그가 마침내 정규 19집 <Movie>를 통해 고점을 찍고야 만다. 그는 이번 작품에서 어떤 영화의 감독이자 주인공으로 분장하여 각 트랙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앨범은 그의 전작들과 유사하게 소울 샘플과 드럼리스, 블랙 비트 위주로 제작되어 있으나, 영화적인 사운드를 도입해 깊이를 더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민자 시절 겪은 고통을 섬세하게 풀어낸 "Mantra", 할머니로부터 받은 지혜와 사랑을 그려낸 "Grandmother's Lessons", YOD는 철저히 개인적인 방식으로 덤덤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걸출한 프로듀서 라인업 역시 눈부시다. 자신의 룰 모델 Yasiin Bey와 함께 Madlib의 재지한 비트 위에서 부드럽게 가사를 주고받는 "Care Plan"이 대표적인 예시다. 전투적인 래핑을 보여준 "Mercury Thermometers" 역시 Conductor Williams의 프로듀싱이 없었다면 이토록 인상적이지 못했을 것이다. <Movie>는 YOD의 새로운 시작과도 같으며, 커리어의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작품이다. 본작을 통해 최고의 영화감독의 모습을 보여준 YOD, 올해 말 발매가 예고되어 있는 Madlib과의 합작 앨범은 어떤 모습일까?

TRACKS

1. Success & Power / 2. Crescent Moon / 3. How Do You Do It? / 4. I Think I Love Her / 5. Mantra / 6. Grandmother's Lessons / 7. Mercury Thermometers by Your Old Droog & Conductor Williams / 8. What Else? / 9. The Sandbox / 10. The Interview / 11. 3 MILLI / 12. Yodi Dodi / 13. The Interview Part 2 / 14. A Damn Shame / 15. DBZ (Feat. Method Man & Denzel Curry) / 16. Roll Out / 17. Movie / 18. Care Plan (Feat. Yasiin Bey)

by Editor 자가

cupcakKe - <Dauntless Manifesto>

2024.06.28



컵케이크(cupcakKe), 인디 래퍼치고 '그렇고 그런 쪽으로' 큰 위상을 떨치고 있는 시카고 출신 여성 래퍼다. 그녀는 코미디 랩으로 분류해도 될 정도의 수위 높은 가사와 적나라한 메시지를 투척하는데, 그것이 마냥 우습지만은 않다. 다소 과대평가적인 경향이 있긴 하지만, 과거 피치포크의 리뷰(<Eden> 中 발췌)에서 언급하듯이 '현실과 부조리, 만화와 육체적 현실을 혼합하는 능력은 컵케이크를 다른 래퍼들과 구별하게 한다.' 실제로 이번 <Dauntless Manifesto>에서도 여전히 저급함의 끝을 보여주지만, 그 위용이 굉장하다. 속된 말로 '변태 제왕'이라 불러도 될 정도랄까. "Connect 4"에서 쓸데없이 진중하게 깔리는 비트 뒤로 성 행위 음성이 예상치 못하게 튀어나올 때, 컵케이크의 변태성에 저절로 이마를 탁 치게 된다. 그렇다고 그녀가 마냥 성적 코드만 다루는 것은 아니다. 내면의 아픔과 과거의 상처를 당차게 물리치는 대장부의 면모가 여실히 느껴지는데, 필자의 취향은 아님에도 그녀에게 확실한 팬층이 존재하는 이유를 실감할 것만 같다. 멋이 흘러넘치는 저급함, Sexyy Red가 진정으로 지향했던 지점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뭐가 됐던 컵케이크의 유니크한 캐릭터는 마냥 눈꼴 시렵지만은 않다.

TRACKS

1. Grilling Niggas II / 2. Connect 4 / 3. Water Balloon / 4. Rock Paper Scissors / 5. Dora / 6. Queef / 7. Aura / 8. DUI / 9. Double Homicide / 10. Little Red Riding Good / 11. Cody / 12. Nun Nun / 13. Yawn / 14. Dementia / 15. Backstage Passes / 16. Cruella

by Editor SRUKSAN

RECENTLY RELEASED

Amaarae

- <roses are red, tears are blue — A Fountain Baby Extended Play>

2024.06.28



작년 소포모어 앨범 <Fountain Baby>로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아마레이(Amaarae)의 음악은 놀라울 만큼 화려하고, 템포가 처지는 순간이라곤 찾을 수 없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아프로팝 비트 위, 그녀는 디 오니소스의 여자제가 되어 섹스와 명예를 추앙했다. 그러나 디럭스 트랙들이 수록된 EP <roses are red, tears are blue — A Fountain Baby Extended Play>에서 그녀는 보다 차분해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wanted"에서 그녀는 숨소리처럼 느껴지는 하모니를 만들어내며 부드러운 그루브를 만들어내고, "diamonds"에서는 자신의 이별을 애탋하고 덤덤하게 풀어낸다. 하지만 2집의 뜨거운 열기를 다시금 연상시키는 뱅어 트랙들 역시 존재한다. 그 중 단연 독보적인 트랙은 "jehovah witness"에서 그녀는 쉬지 않고 빠르게 중독적인 래핑을 내뱉으며, 절정에 달했다는 듯이 애드립과 비명을 내지른다. 아마레이는 분명 현 R&B씬에서 가장 독보적인 캐릭터 중 하나이지만, 전작들에서 보여준 자신감만을 계속해서 밀고 나갈 수는 없다. 그녀는 본작을 통해 자신의 커리어에 새로운 긴장감을 더하였다. 아마레이는 여전히 자유롭고 방탕하게 노래 하지만, 그녀의 가능성을 또 한 번 분출해냈다.

TRACKS

1. sweeeet / 2. wanted (Feat. Naomi Sharon) / 3. jehovah witness / 4. diamonds / 5. this! / 6. THUG (Truly Humble Under God) / 7. Disguise (Remix) (Feat. 6LACK)

by Editor 자가

Hiatus Kaiyote

- <Love Heart Cheat Code>

2024.06.28



하이에이터스 카이요테(Hiatus Kaiyote)의 새로운 앨범 <Love Heart Cheat Code>는 프론트우먼 Nal Palm의 유방암으로 인한 긴 공백기를 깨고 나온 작품이다. 6년 만의 새로운 앨범인 만큼, 전보다 훨씬 탁월해진 보컬과 기타 사운드를 동반한 점이 가장 먼저 귀를 사로잡는다. <Love Heart Cheat Code>의 보컬과 사운드는 이들의 다른 작품들보다 리스너들을 강하게 이끈다. 본작에서 가장 인상적인 트랙은 단연 앨범의 후반부에 위치해있는 "Cinnamon Temple"이다. 시원한 드럼 사운드, 생동감 넘치는 보컬,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곡의 전개와 리듬 등 곡은 근원 불명의 신비함으로 청자를 압도시킨다. 하이에이터스 카이요테의 <Love Heart Cheat Code>는 그룹의 현재이자, 동시에 미래를 제시한 작품이다. 이들은 단순 유쾌함과 재미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추상적이고 혼란스러운 면모 역시 풍부하게 보여주었다. 다음에 발매될 작품에선 본작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우수함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TRACKS

1. Dreamboat / 2. Telescope / 3. Make Friends / 4. BMO is Beautiful (Feat. Niki Yang) / 5. Everything's Beautiful / 6. Dimitri / 7. Longcat / 8. How to Meet Yourself / 9. Love Heart Cheat Code / 10. Cinnamon Temple / 11. White Rabbit

by Editor 자카

RECENTLY RELEASED



Omar Apollo - <God Said No>

2024.06.28

오마르 아폴로(Omar Apollo)는 최근 Complex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항상 갈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런 그의 2번째 스튜디오 앨범, <God Said No>는 그 말 그대로 다양한 감정과 사건에 대한 갈망을 잔뜩 머금고 있다. 인트로 트랙 "Be Careful with Me"에서는 다사다난했던 관계가 끝난 후의 복잡미묘한 감정을 자아비판적으로 노래했으며, 하이라이트 "Dispose of Me"에서는 소울풀한 드럼 소리에 맞춰 첫사랑의 상처를 생생하게 그려낸다. 앨범에 사용된 다양한 사운드 역시 흥미롭다. <God Said No>는 故 Ryuichi Sakamoto의 앰비언트 스타일 작곡에서 큰 영향을 받은 신디사이저와 스트링 사운드로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인지 앨범을 감상하고 있다 보면 우울의 끝을 내려다보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앨범 전체가 이와 같은 사운드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슬픔을 회복하기 위해 방문한 런던 클럽의 테크노 사운드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Less Of You", 밴드 Ivy의 "Edge of The Ocean"을 샘플링한 꿈결 같은 트랙 "Drifting" 등등의 트랙에서 그는 색다른 시도를 보여준다. 앨범은 아름다운 신스, 스트링, 피아노 사운드 아래 상처를 노래하는 "Glow"로 끝이 난다. <God Said No>는 매혹적이고 로맨틱하며, 우울함과 동시에 화려한 작품이다.

TRACKS

1. Be Careful With Me / 2. Spite / 3. Less of You / 4. Done With You / 5. Plane Trees (Feat. Mustafa) / 6. Drifting / 7. Empty / 8. Life's Unfair / 9. Against Me / 10. While U Can / 11. Dispose of Me / 12. How / 13. Pedro / 14. Glow

by Editor 자카

Ken Carson

- <A Great Chaos (Deluxe)>

2024.07.05



작년, 켄 카슨(Ken Carson)은 <A Great Chaos>로 너무나 긴 공백기를 보내고 있는 레이블의 리더 Playboi Carti의 공석을 성공적으로 메울 수 있는 능력을 언뜻 드러냈었다. 그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청사진의 제시에 반해, <A Great Chaos>의 새로운 7트랙은 다시금 한껏 올라왔던 기대를 하강시킨다. 이미 유출됐었던 곡들을 포함한 이 디럭스 앨범은 그저 전작의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으며, 그 문법 또한 개선된 형태에 가깝지 않다. 그러나, 이 단일 작품으로서 무의미한 팬서비스성 발매 속 위치 하우스 장르를 사용한 "overseas"와 같은 트랙을 통하여 향후 카슨의 면모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클라우드 랩과 엣터 있는 레이지와 위치 하우스라는 두 장르의 결합은 선공개 발매 때부터 번뜩였고, 지난친 자가복제와 컨셉 행위로 스테미너가 완전히 소비돼 가는 OPIUM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TRACKS

1. Green Room / 2. Jennifer's Body / 3. Fighting My Demons /
4. Singapore (Feat. Destroy Lonely) / 5. Lose It / 6. Hardcore /
7. Me N My Kup / 8. It's Over / 9. Succubus / 10. Paranoid (Feat. Destroy Lonely) / 11. Pots / 12. Like This (Feat. Destroy Lonely & Lil Uzi Vert) / 13. Overtime / 14. Vampire Hour / 15. Nightcore / 16. Nightcore 2 / 17. Rockstar Lifestyle / 18. i need u / 19. loading / 20. more chaos / 21. toxic / 22. leather jacket / 23. mewtwo / 24. ss / 25. overseas

by Editor BlackMatter

RECENTLY RELEASED



Autumn! - <You Never Was Mine>

2024.07.12

자신의 전성기부터 진행하던 트릴로지 <Solitary> 시리즈의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이었던 본작은 프로젝트가 폐기된 뒤 새로운 이름, <You Never Was Mine>을 갖게 되었다. <Solitary 1>과 <Solitary 2>는 같은 시리즈로 묶기 무리할 정도로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지만, <Solitary 2>와 <You Never Was Mine>은 동일 앨범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유사한 태도와 사운드를 담아내고 있다. 물론, <Solitary 1> 이후로 <Solitary 2>가 발매될 때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간 힙합 씬 내에서의 Autumn!의 위상과 트렌드는 끊임없이 바뀐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Autumn!은 연속된 두 작품에서 더욱 거친 질감의 사운드를 표현하는데 집중하며 시카고 드릴의 향이 가미된 플러그를 '셰프의 킥'으로 활용했다. 이는 최근 플러그, 레이지 등 신스 기반의 트랩 아티스트들에게서 종종 보이는 시도로, 희미한 트렌드를 좇으며 또 이끌어가는 Autumn!의 감각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사운드에 집중한 탓일까? Autumn!은 기대치에 비하면 아쉬운, 독창적이지 못하고 반복적인 벌스들을 나열하기에 급했다.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된 플럭앤비 씬에 자연스레 돌아온 Summrs와는 다른 행보를 걷고 있는 Autumn!이기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긴 하다. 그러나 그는 아직까지 플럭앤비만큼 딱 들어맞는 옷을 찾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TRACKS

1. Now They Shocked! / 2. F My Wrist! / 3. Take Her Phone! /
4. Force His Hand! / 5. Scammers Jackboys Robbers! / 6. Rose Gold Patek! / 7. Passionfruit Lemonade! / 8. How You Mad! / 9. Undercover! / 10. Backcourt!

by Editor SongChico

Blu & Evidence - <Los Angeles>

2024.07.12



Exile, Madlib 등의 프로듀서들과 협작하며 인상적인 이력을 써 내려가는 중인 래퍼 블루(Blu)는 이번 역시 에비던스(Evidence)라는 뛰어난 파트너를 만나 또 하나의 수작 <Los Angeles>를 선보였다. '천사들의 도시'라는 이명에 감춰진 어두운 이면을 밝히는 이 앨범은 폐허가 된 길거리를 그려내는 건조한 드럼과 환각을 묘사하는 몽롱한 멜로디, 그리고 어느 때보다 냉철한 블루의 가사로 이루어졌다. '난 사람도 죽일 수 있어 / 그게 억울하기 위해서건, 1그램도 안 되는 약을 구하기 위해서던 말이야' 같은 구절은 탐욕에 찌들어 살인을 수단 정도로 여기는 도시의 비윤리성을 꼬집는다. 대외적인 화려함에 은닉한 갱들의 분쟁과 사회적 폭력이 낳은 분노와 불안은 적재적소에 배치된 뉴스 클립 샘플들과 유난히도 날이 선 블루의 랩으로 투영된다. 그러나 "Hell"이라는 극단적인 결론과 함께 마무리될 듯했던 서사는 이어지는 트랙 "Heaven"을 기점으로 반전된다. 아무리 지옥 같은 이곳도 결국 누군가에겐 익숙한 보금자리이자 돌아오고 싶을 천국이란 후반부의 이야기는 두 아티스트가 본인들의 고향에 느끼는 애증을 가장 극명하게 담아냈다. 잔인무도한 현실이지만 이 또한 삶이기에 살아내는 자들을 향한 축복이자, 그런 세상의 생존자만이 적을 수 있는 '아름다운 범죄의 도시'를 위한 러브레터: <Los Angeles>를 소개한다.

TRACKS

1. Live from 54th / 2. The Land / 3. Los Angeles (Feat. Nana)
- / 4. Three Wheel Motion (Feat. Kokane) / 5. LA Tourists (Feat. M.E.D.) / 6. LA Traffic (Feat. Cashus King & Self Jupiter) / 7. The Cold / 8. Hell (Feat. Propaganda) / 9. Heaven (Feat. C.S. Armstrong) / 10. Wish You Were Here (Feat. Evidence) / 11. Lights @ Night (Feat. Domo Genesis & Navy Blue) / 12. Wild Wild West / 13. The LA

by Editor denim

RECENTLY RELEASED

Rich The Kid - <Life's a Gamble>

2024.07.19



이제는 추억 속의 인물이 된 트랩 래퍼들은 타 아티스트의 앨범에서 이따금씩 전성기의 편린을 보여주곤 한다. 본작의 주인이자 "Plug Walk"를 통해 사운드클라우드 에라의 주역으로 활동했던 리치 더 키드(Rich the Kid) 역시 올해 최고의 문제작 <VULTURES 1>에 수록된 "CARNIVAL"에 참여해 날카로운 품을 보여주었다. 이 기세를 틈타 그는 새 앨범을 예고했고, 총괄 프로듀서석에는 그 자신을 적재적소에 활용했던 칸예 웨스트(Kanye West)를 동원했다. 칸예의 은퇴소동과 한 차례 연기 뒤에 공개된 본작은 확실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리치 더 키드는 트랩 사운드의 범주 내에서 다양한 사운드를 활용하여 뱅어에 준하는 트랙들로 앨범을 구성했다. 이 방식은 올해 큰 호평을 받고 있는 Chief Keef의 <Almighty So 2>와 닮아있기도 하다. 리치 더 키드는 청각적 쾌감에 집중한 원초적 트랩 음반을 손에 넣긴 했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리치 더 키드 본인에게 있었으니, 여러 사운드가 스쳐 지나가는 각 트랙마다 일률적인 플로우로 대충 트랙을 무마시키고 넘어가는 랩은 무성의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러니 대부분의 하이라이트는 Peso Pluma, Chief Keef와 같은 피쳐링 멤버들에게 넘어갔고, 리치 더 키드만이 유일한 단점으로 남은 본작을 성공적인 복귀작으로 봄아 할지 의문이 든다.

TRACKS

1. Intro / 2. Gimme A Second (Feat. Peso Pluma) / 3. Not In The Mood (Feat. Offset) / 4. New Chanel Freestyle / 5. Upside Down (Feat. French Montana) / 6. Back Then / 7. Louie Coat (Feat. Chief Keef) / 8. Band Man / 9. Like Yoga (Feat. B.I.A) / 10. Hold On / 11. Tell Me (Feat. Young Adz) / 12. Gimme A Second 2 (Feat. Kanye West, Peso Pluma & Ty Dolla \$ign) / 13. Keep It Exclusive (Feat. Quavo) / 14. Sometimes / 15. No Mileage / 16. Plain Jane (Feat. Kanye West) / 17. Rocking & Rolling

by Editor SongChico

midwxst - <BACK IN ACTION 4.0>

2024.07.19



레이지라는 명칭의 시작이 어디였나. 부정적 감정을 분출하고 공연장을 정신적 세이프룸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공연 문화 레이지를 그리워하며 만든 곡 "Miss The Rage"였다. 그만큼, 레이지라는 장르는 얼마나 자극적이고 파괴적인 사운드로 쾌감을 불러일으키고, 공연장에서 관객의 폭력적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에 중점을 준다. Playboi Carti의 <Whole Lotta Red>가 점차 재평가를 받았던 이유에는 실험적이며 새로운 시도로 가득찼던 사운드의 영향도 물론 무시할 수 없지만, 라이브 무대에서 컨셉추얼한 웃을 걸치고 고성을 지르며 관객을 압도하는 포스를 선보였던 아티스트의 매력적인 모습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그리고, OPIUM도, SlayWorld의 멤버도 아닌 미드웨스트(midwxst)의 <BACK IN ACTION 4.0>은 이러한 장르에 대한 이해도로 가득 차있다. 앨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폭력적인 신디사이저와 베이스로 가득찬 레이지 뱅어들은 어쩌면 Yeat나 Ken Carson, Homixide Gang과 같은 오피움의 멤버들보다 더 한 쾌감과 완성도를 보여준다. 본작의 또 다른 강점은 바로 이러한 완성도를 구현하는 데에 있어 F1lthy와 BNYX® 등 유명 레이지 프로듀서들의 동행이 필요치 않았다는 것이다. 조금 부드러운 경로를 택한 후반 몇 가지 트랙이 아니었다면, 여려모로 2024년 최고의 레이지 앨범으로 자리잡았을 법하다.

TRACKS

1. WHITE FLAG / 2. GUN SMOKE / 3. THROW UP / 4. SO WHAT? / 5. E30 / 6. THREATS / 7. MIA (Feat. Dro Kenji) / 8. NO MASK / 9. OVER THERE / 10. PUNCHIN / 11. A.F.H / 12. SICARIOS / 13. FIRE (Feat. DC The Don) / 14. SOUL TIES / 15. NO ENCORE

by Editor BlackMatter

RECENTLY RELEASED



Blxst - <i'll Always Come Find You>

2024.07.19

"색채들은 사라진다. 모든 것은 검정으로 융합된다." - A. 크루초니흐, [글리 글리] 중.

흔히 '無'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검정은 사실 서로 다른 모든 색채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비로소 탄생하는 색이다. 이는 그 어느 색보다 구체적인 일체화를 나타내며, 포용성을 뜻하기도 한다. 2022년 발매된 EP <Before You Go>를 통해 LA의 맑고 통일된 색채를 그려온 블래스트(Blxst)의 첫 정규 앨범 <i'll Always Come Find You>는 블래스트가 아티스트로서 더 많은 색을 흡수하게 된 과정을 그린다. 그동안 자가복제로 비판을 받았던 기존 밝은 LA 사운드의 비중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알앤비, 아프로비트, 하우스, 놀라바운스, 레게톤과 네오 소울 등 수많은 장르의 기법들을 차용해 이전 그의 음악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광대한 차이를 둔다. 2년 만에 돌아온 그의 앨범은 '뻔한 자가복제'라는 타이틀을 벗겨내기에 성공하였다. 블래스트의 가장 큰 능력인 멜로디 메이킹 덕에 모든 사운드들이 통일되게 정돈되어 있다는 점 역시 높게 살만하다. 그의 반다나는 선글라스가, 플라넬은 바시티가 되었으며, 체인은 네티아이가 되었다. 아직 장르 이해도를 요하는 세심한 면에서는 발전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지만, 적어도 아직은 그에게 웨스트코스트의 미래를 맡길 희망이 보인다.

TRACKS

1. Paper Route (Feat. 2 Chainz) / 2. Evgle & Son / 3. Long Way (Feat. Amanda Reifer) / 4. Want You To Know / 5. Selfish Ways / 6. Too Many Friday Nights (Feat. Fatman Scoop) / 7. Reason / 8. Risk Taker (Feat. Offset) / 9. Private Show / 10. How Many / 11. Bad Idea / 12. Thousand Hours (Feat. Joony) / 13. Dance With The Devil (Feat. Anderson .Paak) / 14. I Had To / 15. Rewind (Feat. Feid & Becky G) / 16. Better Off Friends (Feat. Joyce Wrice) / 17. Always Something / 18. I Need Your Love (Feat. Ty Dolla \$ign) / 19. To The Moon / 20. Ten Summers Or Better (Feat. Kamasi Washington)

by Editor SNXO

TRACKS

1. Samurai
2. Mumble Rap
3. Cake
4. Palaces
5. No. 1 Headband
6. Bigfoot
7. Outside
8. Til Eternity

2024.06.28

"저는 요즘 배틀 랩을 하는 중인데, 그냥 랩이 저에게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Wu-Tang 같은 것들.
하지만 아주 편안하고 아름답게 두운이 맞춰져 있는 작은 배틀 랩들 말이죠. 그러니 다음에 저와 랩
배틀을 하게 된다면, 저는 당신을 죽여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난 사무라이니까."

-Amy Winehouse, 2015년 개봉된 다큐멘터리 <Amy>에서

예리하고 경쾌하다. 지난 2022년 <DRILL MUSIC IN ZION>으로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준 루페 피아스코(Lupe Fiasco)는 Amy Winehouse가 생전 촬영한 다큐멘터리 속 한 짧은 장면에 착안해 작업을 시작했다. 즉 본작은 'Amy Winehouse가 배틀 래퍼가 된다면?'이라는 상상의 일부분인 것. 하지만 본작을 일컬어 그녀의 삶을 새롭게 풀어놓는 콘셉트 앨범 혹은 루페가 쓴 그녀의 자서전이라 착각한다면 곤란하다. 다소 노골적이고 쉬운 길 대신 루페는 지극히 그다운 방법으로 다큐멘터리 속 구절, 그녀의 고향인 영국의 모습과 언어를 작품 속에 춤총히 녹여냈다. 현 힙합 씬 최고 리릭시스트에 의해 사무라이의 도검처럼 날카롭게 벼려진 구절들은 유려하게 청자의 심장을 도려낸다.

작품의 전반부는 이러한 상상에서 시작하여 루페 특유의 작법으로 분위기를 만든다. 그는 'She'나 'Her' 등의 대명사와 'fag', 'drag'와 같은 영국식 영어를 사용해 시점을 자유자재로 오간다. "Samurai"의 혹은 상술한 Amy Winehouse의 말을 재조립한 것이며, 마이크 드롭 후 청중들이 열광하는 장면을 삽입한 "Mumble Rap", 랩 배틀 승리 이후의 모습을 그린 "Cake"까지 컴팩트하게 꾸민 구성은 거창한 미사여구나 억지스러운 서사 없이도 루페가 그리는 벽화 전체를 조망할 수 있게끔 한다. 한편 후반부는 아티스트 자신의 이야기가 주가 된다. "Til Eternity"의 아련한 루프 사이로 자신의 부모님과 출생부터 최근 이뤄낸 MIT 강연에 이르는 인생의 궤적을 따라간다. 그가 분한 <Samurai> 속 Amy Winehouse의 랩 배틀은 끝났지만 그의 삶은 예술 속에서 '영원까지' 유지될 것이다.

데뷔 초부터 함께하며 수많은 대표곡을 만들어냈던 오랜 동료 Soundtrakk은 루페의 래핑이 빛날 수 있는 담백한 비트로 적극 조력에 나섰다. 전반적으로 재즈 루프를 기반에 두고 있으면서도 "Cake"처럼 DJ Premier 타입의 샘플 차핑, "Outside"의 후렴에 맞춰 잣아드는 드럼, "Kick, Push"와 동일한 BPM의 "Til Eternity"까지 세세한 포인트에 차이를 두어 다양성을 더했다. 마치 루페만을 위해 제작된 맞춤복 같은 프로덕션이다. 루페 역시 이러한 디테일에 부응하듯 노련한 실력을 고스란히 뽐낸다. 자연스러운 멜로딕 랩 코러스, "No. 1 Headband" 말미의 타이트한 퍼포먼스가 그 단적인 예다. 두 베테랑 래퍼와 프로듀서가 각자의 최선을 발휘한 결과 특별한 피처링 없이도 31분의 볼륨이 다채롭고 풍성하게 채워진다.

이 시점에서, 루페 피아스코의 전성기는 과연 언제인가? 혹자는 그가 Kanye West를 등에 업고 시카고의 총아로 등장했던 <Lupe Fiasco's Food & Liquor>를 꼽을 것이고, 더욱 성숙한 모습의 <Lupe Fiasco's The Cool>, 혹은 그의 작법이 전성기에 다다랐음을 알린 <Tetsuo & Youth>를 댈 수도 있겠다. 그러나 루페는 항상 발전해 왔음에 주목해야 한다. 초기의 풋풋함과 애틀랜틱 레이블과 갈등 이후의 독기, 여러 장르를 시도하던 시절의 생동감은 희석됐지만 이제 그의 주 무대인 블랙에서 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 고유의 영역을 구축한 아티스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자신감이다. 그 때문에 <Samurai>에서 감지되는 아우라는 루페의 전성기가 현재진행형이라는, 또는 아직 최고점에 다다르지 않았다는 생각까지 이르게 한다. 20년이 넘게 힙합 신에서 전투해 온 노장이 칼끝을 높게 치켜들고 개전을 알리니,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주목하게 만드는 출정사격의 작품이다.

MEGAN

THEE STALLION

TRACKS

TRACKS

- | | |
|------------------------------|--|
| 1. HISS | 10. Mamushi (Feat. 千葉雄喜 (Yuki Chiba)) |
| 2. Rattle | 11. Accent (Feat. GloRilla) |
| 3. Figueroa | 12. Paper Together (Feat. UGK) |
| 4. Where Them Girls At | 13. Spin (Feat. Victoria Monét) |
| 5. Broke His Heart | 14. Down Stairs DJ |
| 6. B.A.S. (Feat. Kyle Richh) | 15. Miami Blue (Feat. Big K.R.I.T. & Buddah Bless) |
| 7. Otaku Hot Girl | 16. Worthy |
| 8. Find Out | 17. Moody Girl |
| 9. BOA | 18. Cobra |

2024.06.28

메건 디 스텔리온(Megan Thee Stallion, 이하 메건)은 근래 가장 많은 헤이팅을 받아오던 아티스트였다. 최근까지 크나큰 이슈로 여겨졌던 Tory Lanez와의 비프 및 법정 싸움으로 인해 Drake와 Eminem 등의 래퍼들로부터 수 차례 디스를 당했고, 이들의 팬덤 역시 그녀를 괴롭혔었다. 그러나 작년 8월 Tory가 10년형을 선고받은 이래로, 그녀는 다시금 인기와 팬덤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메건은 2024년 한 해를 상당히 성공적으로 보내고 있다. '힙합의 여왕'이라 불리는 Nicki Minaj와의 디스전에서 그 누구도 부정 못할 승리를 당당히 쟁취해냈으며, Nicki를 향한 디스곡 "HISS"는 빌보드 싱글 차트에 1위로 핫샷 데뷔하며 고점을 찍었다. 또한 새로운 정규 앨범의 선공개 싱글들 모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으며, 그녀의 정규 3집에는 자연스레 모두의 관심이 쏠렸다. 그렇기에 본작 <MEGAN>은 그녀의 커리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품이 될 운명이었을 테다. 앞선 문단에서 언급했듯이, 그녀는 현재 굉장히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대중들과 평론가들 모두가 그녀에게 열광하고 있으며,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주도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섰다. 그래서인지 <MEGAN>은 그녀 자신의 다른 작품들과 비교해 보아도 훨씬 에너지 넘치며, 전성기의 절정을 달리고 있는 그녀의 기분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처럼 보인다.

자신의 단단한 하드웨어를 뽐내며, 자신의 적들에게 가벼운 잡을 날리는 두 곡 "HISS"와 "Rattle"을 시작으로 메건은 본작에서 자신의 개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선보인다. "Otaku Hot Girl"에서 그녀는 일본 문화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표현하며, 일본 아티스트 Yuki Chiba가 힘을 보탠 "Mamushi"는 불량식품과도 같은 그녀의 캐릭터를 나타낸다. "Accent"는 GloRilla와의 좋은 합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녀의 재치까지 조화롭게 섞어낸 곡이고, "B.A.S.", "Down Stairs DJ"에서는 그녀가 항상 보여주었던 유쾌한 분위기가 풍긴다.

그러나 본작엔 이런 훌륭한 트랙들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니다. "Paper Together"와 "Moody Girl"는 그녀와 잘 맞지 않은 스타일을 차용해 곡이 진행되는 내내 어색함이 맴도는 트랙이다. "Broke His Heart"에서는 메건이 과하게 흥이 난 탓일지, 그녀의 에너지가 이곳저곳으로 난잡하게 발산된다는 감상을 하게 했다. 또한 Big K.R.I.T.가 참여해 힙합 애호가들의 가장 큰 기대를 모은 "Miami Blue" 역시 생각보다 아쉬운 벌스들을 보여준 비운의 트랙으로 남게 되었다. Lizzo나 Doja Cat의 스타일을 연상시키는 트랙 "Worthy"는 분명 가볍게 즐기기 좋은 곡이나, 그녀가 자신의 팬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이 앨범에 얹지로 추가한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MEGAN>은 그녀의 훌륭한 역량을 엿볼 수 있었고, 그녀의 커리어 하이가 될 수 있는 작품이다. 하지만 굳이 앨범에 존재해야 하나 의문이 드는 트랙들과 아쉬운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던 피처링진들, 그리고 메건의 야망에 비해 빈약한 프로덕션 등 아쉬운 부분이 산재해있기도 하다. 메건은 앨범이 진행되는 동안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1시간에 다다르는 러닝타임 동안 이를 계속해서 듣기는 조금 버겁다고도 느껴진다. 최고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메건에게 사실 팬층을 유지하는 것이 음악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당연지사일 테다. 그럼에도 그녀는 본작을 통해 앞으로의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해 주었으며, 그녀의 여타 다른 작품들 중에서도 노력의 흔적이 가장 많이 보이는 작품이기도 하다. <MEGAN>은 기대를 완벽히 충족시켜주진 못하였되, 그녀의 다른 모습들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어준 앨범이다.



BOLDY JAMES CONDUCTOR WILLIAMS

ACROSS THE TRACKS

Full Length Album Review

by Editor 감상주의



TRACKS

1. Terms And Conditions
2. All Madden (Feat. Bo Jack)
3. Flying Trapeze Act
4. The Ol Switcharoo
5. Undisputed
6. Lamp Shade
7. St. Juliania
8. Permission (Feat. Mafia Double Dee)
9. Offwhite Lumberjack
10. Stamps in the Middle

볼디 제임스(Boldy James)가 작업을 재개한 것에 대한 안도감과 감사함이 서문을 장식한다. 원래도 연당 최소 두 개 이상의 앨범을 발표하던 다작가라서 그런 것인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 년이면 공백기로 보기에도 애매할 정도의 단기간임에도 그의 공백기가 너무나도 길게만 느껴졌다. 그러나 바로 다음 해에 공개된 작업물 덕분에 그간의 염려는 금세 기우가 됐다.

커리어는 물론 자칫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었던 심각한 교통사고를 작품의 소재로 삼고, 몸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녹음을 강행한 그에게 무슨 걱정이 더 필요할까? 오히려 늘 목숨이 벼랑 끝에 걸쳐 있는 거리에서의 생존, 그리고 절망으로부터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테마로 삼아 온 그이지 않은가? 이 절체절명의 순간 또한 볼디에게는 또 다른 이야기거리에 불과했다. 올해 연초에 프로듀서 니콜라스 케이븐과의 협업으로 발표한 <Penalty of Leadership>이 바로 그것이었다. 단적으로, 아트워크에서 들것에 실려가면서도 뮤지션으로서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긴 스마트워치를 재생하는 주인공을 보라!

그는 사고 따위가 자신의 본능적인 창작열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듯, 반 년도 지나지 않아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한다. 이번에는 컨더터 윌리엄스(Conductor Williams)와 함께한 <Across the Track>으로 말이다. 둘의 조합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색깔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진 않을 것이다. 컨더터는 어김없이 샘플 루프의 맛을 기가 막히게 살린 담백한 붐뱁/드럼리스 비트를 들려줄 것이다. 그는 일관된 미학 내에서 질리지 않는 감흥을 유지할 줄 아는 장인 계열의 프로듀서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번에 더 궁금증을 자극하는 쪽은 볼디일 것이다. 전작은 재활 중 녹음을 강행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힘을 빼고 단조로운 라이밍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가사의 주제도 당시 상황과 현 자신의 상태, 그리고 회복 가능성 및 의지에 대한 보고서에 가까울 수밖에 없었다. 이후 그는 거리를 노래하는 시인으로서의 생기를 되찾았을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인트로 "Terms and Conditions"에서부터 볼디는 전자가 답이라는 것을 일깨운다. 비트는 마치 영웅의 귀환을 알리는 것만 같다. 안전과 위협, 삶과 죽음, 절망과 희망이라는 테마는 거시적으로 전작과 동일했다. 그러나 테마의 바탕과 통찰적인 시선이 구사일생의 경험을 뒤로 제쳐두었다는 암시와 게토로의 귀환 선언이 이렇거나 반가울 줄이야. 오히려 원래도 능숙하게 해오던 재담은 한 층 더 여유로워지기까지 했다. "All Madden"이나 "Flying Trapeze Act" 등, 소울풀한 샘플이 특징인 트랙들에서 볼디의 담담한 라이밍 및 스토리텔링은 그야말로 영혼 안에 가득 찬 관대함과 지혜로움으로 새로운 힘을 깨달은 것처럼 들린다.

"The Ol Switcharoo", "Undisputed", "Lamp Shade"로 이어지는 불안에 관한 암시도 더욱 의미심장하고 남다르게 다가온다. 고요함이나 화려함의 배후에 은근슬쩍 자리하고 있는 위태로움은 언제든 갑작스럽게, 혹은 서서히 당신의 목덜미를 덮쳐 몰락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 늘 안전을 위협받는 마약 거래나 게토 생활에 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이 사실이 삶을 지속해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새삼스럽게, 그러나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자만이 가닿을 수 있는 이야기를 온전하게 다룰 자격이 생긴 것일까. 어찌 됐든 요컨대 '우여곡절의 연속인, 삶이란 제목의 희비극'과 '무대 한가운데에서 결코 정신을 놓지 않는 주인공', 이 두 가지를 핵심적인 메시지로 삼는 볼디의 이야기가 이로써 한 차원 위의 입체성과 탄성력을 획득해낸 것만은 확실하다.

일전에 알케미스트는 "볼디에겐 달밤에 이동 중이던 차를 세우고서라도 그 안에서 천천히 작사에 몰두하던 습관이 있다"라고 컴플렉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다. 알케미스트는 이를 존중해줬다. 이번에는 컨더터가 그 역할을 대신해 줬으며, <Across the Track>의 프로덕션은 평소의 습관과 같은 열정과 여유를 회복 한 볼디를 위해 그가 손수 마련한 선물들이다. 그리고 아웃트로 "Stamps in the Middle"은 고난으로부터 승리하고, 안정을 위해 나아갈 준비가 된 그를 위한 경쾌한 축하다. 이제 그는 앞으로의 자취를 향한 주행을 재개할 것이다. 더욱 강인해져서 돌아온 그를 열렬히 환영한다.

LIL YACHTY & JAMES BLAKE

BUY

TRACKS

1. Save The Savior
2. In Grey
3. Midnight
4. Woo
5. Bad Cameo
6. Missing Man
7. Twice
8. Transport Me
9. Run Away From The Rabbit
10. Red Carpet

2024.05.17



Full Length Album Review

by Editor denim

BAD CAMEO

릴 야티(Lil Yachty)와 제임스 블레이크(James Blake)는 비록 출생부터 전문 분야까지 전부 다르지만, 각각 분야의 이단아로 데뷔했다는 점만큼은 서로와 닮았다. 소위 '정통 힙합'이 십 수년간 제시해 온 스킬풀한 랩과 묵직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내길 거부한 채 동요에 가까운 심영을 선보인 릴 야티, 스크릴렉스류 트랩-딥스텝과는 정반대 지점에서 IDM의 영향이 가득한 사운드를 구축해 낸 블레이크. 어쩌면 시대상을 거스르는 반골 유전자 소유자인 둘이기에, 합작 앨범 <Bad Cameo>의 발매와 함께 새로운 장르의 포문이 열릴 거란 기대가 들끓었는지도 모르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앨범은 그 네임밸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결코 완성도를 절하하려는 의도는 없다. 작품 그 자체만을 치시했을 때 <Bad Cameo>는 지금껏 릴 야티와 블레이크가 세상에 내놓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을 보강하기엔 충분한 퀄리티를 지닌다. 다만, 작품이란 필연적으로 작가와 결속되어 있기에 창작자에게 걸린 기대치를 배제하고 순수 작품성을 따지기란 불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두 아티스트의 첫 시도는 충분히 도전적이지 못했기에 다소 아쉽다.

일렉트로니카 기반의 프로듀서와 악스타로 성공적인 탈바꿈을 이뤄낸 래퍼의 만남은 의외로 정적이었다. 마치 응어리진 애석함을 이기지 못해 비통함 외에는 표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적어낸 과거로 보내는 편지처럼 말이다. 간혹 "Twice"의 혹이나 "Transport" 중 야티의 벌스처럼 최소한의 생기가 도는 순간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미저도 블레이크의 압도적인 아련함에 곧바로 중화되고 만다. 슬픔의 단면만을 보여주는 탓에 결국 다수의 곡에서 청자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단일화 되어있고, 이는 안타깝게도 43분이란 러닝타임을 지루하게까지 만든다.

어쩌면 이 문제의 가장 큰 요인은 앨범의 두 주인공이 충분히 융화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유사한 시기에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며 친해진 둘이 앨범을 만들기로 했지만, 음악적으로는 충분한 실험과 논의를 거치지 않은 느낌이다. 그 결과는 블레이크의 색이 과도하게 짙은 인스트루멘탈 위 불가피하게 떠밀려 앉어진 릴 야티의 목소리다. 대표적인 예시로 "Midnight"은 블레이크 홀로 모든 파트를 담당하고 솔로 앨범에 싣는다 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 파트너의 존재감이 적다. 종반부에 잠시 등장하는 릴 야티의 보컬은 그다지 큰 감흥을 남기지 못할뿐더러, 그 곁에서 블레이크의 가성과 별반 차이조차 없다. 이는 "Bad Cameo"나 "Missing Man"에서도 마찬가지로, 2022년 "Poland"의 예기치 못한 성공을 재구현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나 이 작품에서 야티는 블레이크의 호소력을 능가하지 못한다. 반면, 어떤 곳에서의 블레이크와 릴 야티는 각각 본인의 안전구역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서로의 주변만을 배회하며 차례를 기다린다. 마치 같은 트랙 위 공생하다 보면 마법 같이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할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적은 앨범을 통틀어 몇 번 일어나지 않는다. "Woo"와 같이 일반적인 앰비언스 트랩과 야티의 랩으로 시작해 코러스를 기점으로 블레이크의 해체주의적 발라드로 뒤바뀌는 도전적인 편곡은 유감스럽게도 드물다. 대체로 릴 야티는 최근작 <Let's Start Here>를 통해 호평받은 스타일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블레이크는 장기인 미니멀 포스트-딥스텝 격의 사운드를 이어간다. 개별적으로 본다면 각자의 개성이 돋보이는 건 맞지만, 대중이 바라던 건 공존이 아닌 융합이다.



조금 너그러워져 보자면, <Bad Cameo>는 기대만큼 새롭지 않을 뿐이지 수작의 완성도를 갖추었다. 인트로 트랙 "Save the Savior"는 무던한 발라드임을 감안하고 듣는다면 두 아티스트의 보컬합이 상당한 여운을 남길 수 있다는 여지를 준다. "Run Away from the Rabbit"에서의 릴 야티는 오히려 톤을 가볍게 설정한 채 보컬을 멜로디의 일부처럼 사용해 절제된 도입부를 장식했고, 이를 바탕으로 블레이크는 새로운 요소들을 추가하며 성공적인 빌드업을 이루어냈다. 필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청자들이 기대하던 바로 이런 모험심 넘치는 트랙이다. 이처럼 상호 간의 캐미스트리가 존재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너무 안전했던 탓에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잠재력은 훗날 보다 도전적으로 변화한 제임스 블레이크와 릴 야티에게 맡겨보도록 한다.

The Death of Slim Shady (Coup de Grâce)

TRACKS

1. Renaissance
2. Habits
3. Trouble
4. Brand New Dance
5. Evil
6. All You Got (Skit)
7. Lucifer
8. Antichrist
9. Fuel
10. Road Rage
11. Houdini
12. Breaking News (Skit)
13. Guilty Conscience 2
14. Head Honcho
15. Temporary
16. Bad One
17. Tobey
18. Guess Who's Back (Skit)
19. Somebody Save Me

2024.07.12

2000년대 초반 *<The Marshall Mathers LP>*, *<The Eminem Show>* 등의 불후의 명반들로 커리어에 방점을 찍은 에미넴(Eminem)을 막을자는 없었다. 그는 역사에 남을 기록들을 세웠고, 화려함과 재치를 동시에 잡은 퍼포먼스를 선보였으며, 슬림 셰이디(Slim Shady)라는 얼터 에고를 통해 자신의 불만과 분노를 거침없이 표출해냈다. 그는 말 그대로 시야 전방의 모든 것들을 향해 중지율 펼치며 다녔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빼어난 완성도의 작품들로 자신의 재능과 씬에서의 위치를 견고히 했다. 당시 그에게 대적할 수 있는 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고, 에미넴 역시 쇠락을 피할 수는 없었다. 전성기에 비견될 정도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준수한 평가를 받았던 *<Relapse>*, *<The Marshall Mathers LP2>* 등의 작품으로 커리어를 연장해나가던 그는 2017년 갑작스레 *<Revival>*이라는 괴작을 발매하며 리스너들에게 이전과는 사뭇 다른 방식의 충격을 선사했다. 이후 발매한 *<Kamikaze>*, *<Music To Be Murdered By>* 역시 과거에 비해 평론적으로 미비한 평가를 받으며 자신의 위상에 흠집을 남기기 시작했다.

그렇다. 그의 나이가 반백을 능가한 지 이미 한참 되었다는 시점에서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지만, 에미넴은 이제 더 이상 예전 같지 못하다. 그의 분노는 과거에는 슬림 셜이디와 함께해 굉장히 유쾌하고 재치 있게 들렸지만, 여전히 동일한 분노를 머금고 있음에도 이제는 너무나도 둔탁해진 나머지 중년의 신경질 정도로 다가오는 경우가 다반사다. 날렵하고 유연한 퍼포먼스를 자랑해왔던 에미넴이 과거 그의 추종자들이었던 랩 팬들에게 이젠 그다지 좋지 못한 이미지로 각인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The Death of Slim Shady>의 인트로 트랙 "Renaissance"의 주제는 전자 <Music To Be Murdered By>의 인트로 "Premonition"과 동일하다. '셰이디는 아기를 담요에 얹힌 뒤, 목을 조르지', '내가 눈치를 안 보기 시작하자마자, 조금씩 팔리기 시작했었어', '이젠 팬은 안 보이고, 불편해하는 놈들만 떼거지인 것 같아', 그는 자신과 동료들의 헤이터들을 향해 매섭게 쏘아붙이고, 논란이 될 만한 가사들을 내뱉으며 남은 1시간 동안 광기 서린 분노를 보여주겠다 예고한다. 풀어서 말하자면, "Renaissance"는 <The Death of Slim Shady>가 근본적으로 테마 면에서 전작과 별 다른 차이점이 존재치 않는—또 하나의 그저 그런 '뉴 에미넴'의 앨범이 될 것임을 알리는 전조와도 같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작품의 장단점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자. 우선 앞서 에미넴이 요즈음 선보여주는 가사들이 '갱년기 중년의 신경질'으로 느껴진다고 표현했었는데, 특히 본작에서 그러한 점이 유독 두드러지는 듯하다. <Encore> 에라에서 녹음된 "Brand New Dance"는 2004년 사망한 Christopher Reeve를 향한 3분 동안의 디스를 담고 있으며, 앨범이 진행되는 동안 PC, LGBT, Gen-Z 세대, 사우스 파크 등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감행한다. 아쉽게도 <The Eminem Show> 이후 22년의 세월이 지난 현재로서는 이러한 에미넴의 농담들이 더 이상 해학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Christopher와 Caitlyn Jenner 등 본인의 커리어 내내 디스해오던 인물들을 비롯, Lizzo와 Megan Thee Stallion 등의 인물들 역시 알 수 없는 명목으로 디스하며 — 앨범을 현실성도, 신선함도 존재치 않는 과거 슬림 세이디의 전시행정처럼 느껴지게 한다.

또한 자신이 PC 경찰들에 의해 캔슬(Cancel)당했다는 주장에도 크나큰 모순이 존재한다. 에미넴은 자신의 거친 농담과 디스 때문에 헤이터들이 그를 캔슬하려고 한다 주장하지만, 이는 그가 2024년에도 Slim Shady라는 캐릭터에 대중들이 열광할 것이라 착각을 해 발생하게 된 논리적 하점이다. Slim Shady라는 캐릭터는 2002년 에미넴의 전성기 때는 분명 독보적이고 신선한 캐릭터였다. 화려한 래핑과 라이밍을 통해 끊임없이 논란을 불러 모으던 캐릭터 Slim Shady는 2024년, 에미넴의 기량과 유머 감각이 당시에 비해 한참 쇠퇴한 시점에는 그저 불쾌하게만 다가올 뿐이다. 애석하게도, 이제 세이디는 전혀 흥미롭지 못하다.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뿐 아니라, <The Death of Slim Shady>에는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큰 결점이 존재한다. <The Slim Shady LP> / <The Marshall Mathers LP> / <The Eminem Show>로 에미넴이 탄탄한 디스코그래피와 전성기를 쌓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Dr. Dre가 프로듀싱에 큰 힘을 보태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에미넴이 어떤 비트와 가장 잘 어울릴지를 알고 있었고, 에미넴 역시 Dre의 비트 위에서 말 그대로 날아다녔다. 그러나 <The Death of Slim Shady>에서 Dr. Dre의 참여곡은 "Road Rage" 하나뿐이고, 에미넴이 대부분 수록곡의 프로듀싱을 맡았다. 세이디 시절의 느낌을 어느 정도 살리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만, 2000년대 초반의 걸작들과 비교하게 되어 아쉬움을 남긴다. 정력적이었던 과거의 모습을 재현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Recovery> 때부터 계속되었던 진부한 스타일을 다시금 상기시키기만 한다.

본문에선 <The Death of Slim Shady>를 단점만이 가득 찬 앨범처럼 표현해 놓았지만, 본작에는 그래도 주목할 만한 트랙들이 몇 군데 분포하고 있다. 슬림 세이디와 대화하며 말다툼을 나눈다는 내용의 "Habits"와 유사한 컨텐츠로 앨범 최고의 순간을 주조한 "Guilty Conscience 2", 수많은 라임들을 빼곡히 채운 JID와의 콜라보 트랙 "Fuel"는 비교적 지루하던 앨범의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가볍게 고개를 흔들며 즐길 수 있는 선공개 싱글 "Houdini"와 "Tobey", 악에 의존했던 나날들과 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헌사를 담은 "Somebody Save Me" 역시 각각의 방식으로 큰 여운을 남긴다.

그러나 "Breaking News", "Guess Who's Back"과 같은 스킷 트랙들은 청자들로부터 하여금 머리 위 물음표만을 띠우게 만들고, "Road Rage"나 "Head Honcho" 같은 트랙들의 피처링 벌스는 애석하리만큼 모자라기에 큰 실망만을 안겨준다. "Brand New Dance", "Antichrist", "Bad One" 등의 경우는 장황한 곡의 러닝타임이나 벌스에 비해 에너제틱한 순간이 존재치 않다. 앞선 문단에서 언급한 트랙들처럼, 그나마 다들 즐길 수 있을 트랙들이 존재하는 반면 대부분의 트랙들이 끊임없이 올라가기만 하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꼴을 띠고 있어 앨범에 전반적으로 '지루하다'라는 인상을 남기게 한다.

"<The Death of Slim Shady>는 컨셉 앨범입니다. 따라서 앨범을 꼭 트랙 순서대로 들어주셨으면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잘되지 않을 겁니다. 즐겨주세요." 에미넴은 앨범 공개 하루 전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본작에게 조금의 관심을 가진 상태로 글을 읽어나가는 독자라면 아마 알고 있겠지만, <The Death of Slim Shady>의 주된 컨셉은 자신의 얼터 에고인 슬림 세이디를 완전히 죽이고 온전한 개인 Marshall Mathers가 될 것임을 공표하는 것이다. 에미넴은 사실 <Relapse>와 <Recovery>를 발표했을 때부터 슬림 세이디라는 자아를 내려놓고 싶어 했다. 그러나 수장의 앨범을 발매하고, <Kamikaze>와 같이 자신의 오랜 팬들이 원하는 앨범을 발매해도 그의 팬덤 Stan들은 그에게 계속해서 '슬림 세이디 스타일의 앨범'을 요구했다. 결국 이들을 위한 마지막 앨범이자 슬림 세이디라는 캐릭터의 마침표가 본작 <The Death of Slim Shady>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Stan들을 위한 에미넴의 마지막 헌사는 가지는 의의에 비해 성공적이지 못했고, 대중들을 비롯해 그에게 관심을 갖고 있던 이들에게마저 실망을 안겨준 모양새다. 그의 농담은 더 이상 재미있지 않으며, 랩과 가사 역시 예전 같지 않다. 에미넴은 PC 경찰들이 자신을 캔슬 하려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지만, 그럴수록 그가 잠재적으로 가진 캔슬 컬처에 대한 공포와 한물 간 늙은이의 옹고집을 은연 중 노출하는 꼴로밖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의 은퇴작이라 공표된 본작 후 혹시라도 에미넴의 다음 앨범이 언젠가 발매된다면, 본작의 아쉬운 평가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젠 Marshall Mathers다운 작품을 발매해 주기를 바란다. 처음부터 자신의 곁에 있던 소중한 동료들과 함께.

The logo for Eminem, featuring the word "EMINEM" in a large, bold, white sans-serif font. The letters are slightly slanted and have a three-dimensional, metallic appearance. The background behind the text is dark and textured.



TRACKS

1. Dreamin'
2. Chi-Town Do It
3. This Man
4. We're On Our Way
5. Fortunate
6. So Many People (Feat. Bilal)
7. Wise Up
8. A GOD (There Is) (Feat. Jennifer Hudson)
9. Stellar
10. Lonesome
11. All Kind Of Ideas
12. When The Sun Shines Again (Feat. Posdnous)
13. Everything's So Grand (Feat. PJ)
14. Now And Then
15. Outro

2024.07.12



The Auditorium Vol. 1

Common, Pete Rock

"사람의 꿈은 끝나지 않아!" 유명 만화 <원피스>에 등장해 현재까지도 회자되는 명대사이다. 이를 현실의 삶에 비춰 보았을 때, 꿈이라는 건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꿈의 크기가 작거나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거창하지 않아도, 결국 꿈은 사회를 움직이게 하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자 에너지가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은 꿈을 실현하고자 끝없이 나아간다. 이를 자연스러운 욕구라 치부해도 좋다. 단 모든 욕구가 그렇듯,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라지진 않아도 쇠해지는 건 불가항력이다. 하지만 지천명을 넘긴 커먼(Common)과 피트 록(Pete Rock)에겐 전혀 그렇지 않았다. 왜냐하면 두 거장은 아직도 꿈을 꾸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 시점에서는 이루기 어려운 백일몽에 가깝겠지만, 커먼과 피트 록이기에 우리는 강당(Auditorium)에 착석해 그 과정이자 결과인 <The Auditorium Vol. 1>을 기대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다.

재즈와 소울 뮤직 샘플, 투박하면서도 정교한 메이킹, 탄탄한 기조 등으로 대표되는 피트 록의 작법론은 이번에도 건재하다. 90년대의 진한 노스탤지어를 일깨우는 장인의 비트는 앨범을 유기적으로 큐레이팅해 나간다. 물론 작금의 힙합과는 조금 결이 다른 사운드 조류지만, 한 우물만을 수십 년간 파온 피트 록이기에 지금에서 노련한 체계의 결을 보여준다. 이 모든 것은 앨범의 시작부터 강대한 설득력을 갖추게 된다. Aretha Franklin의 "Day Dreaming"을 샘플링 하여 아름다운 재즈 선율의 브라스가 풍성하게 담긴 "Dreamin'"은 이번 앨범의 그 어떤 순간보다 절정에 근접하다. 그뿐만 아니다. 커먼과 가장 잘 어울리는 타입의 비트 "Fortunate", 피트 록이 직접 랩을 선보여 색다른 운율을 자아내는 "All Kinds Of Ideas" 등 모든 구성의 트랙이 균형 잡힌 음악적 서사를 그려낸다.

<The Auditorium Vol. 1>의 각 트랙은 뚜렷한 주제 의식을 응축하고 있다. "Dreamin'"에서는 '내가 꿈을 만지면, 그것은 현실이 된다'라고 읊조리며, 동시에 이제는 세상을 떠난 J Dilla, Biggie, Martin Luther King 등 힙합과 흑인 사회를 위해 헌신한 자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꿈꾼다. 과연 정말 그들이 부활해 되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일까? 결코 아니다. 커먼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들을 잊지 말자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 것이다. 또한 "Wise Up"에서는 본인의 모습을 빗대 역경을 이겨낸 자들을 노래하고, "God"에서는 현 사회의 아픔들을 신에게 고백하며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자고 외친다. 이처럼 담고 있는 메시지는 조금씩 다르지만, 여러 관점으로 바라본 현실 속에서 성숙해져 나가는 커먼의 모습이 결국 그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로 귀결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The Auditorium Vol. 1>의 대주제이다. 작가주의적인 성향을 바탕으로 우아하게 서사를 스토리텔링 해 나가는 커먼, 역시나 그의 보컬과 메시지엔 전혀 부족함이 없다.

사실 이 둘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역사적인 디스 트랙 "The Bitch in Yoo", 피트 록의 솔로 앨범 <Soul Survivor>의 수록곡 "Verbal Murder 2" 등 둘은 완벽한 양상들의 절충작들을 이미 보여준 바가 있다. 그에 반해 이 조합은 자주 볼 수 없어 많은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지만, 24년 7월 이 둘은 1MC & 1DJ의 포맷으로 다시 돌아왔다. 다변화를 담아내기보다는 원초적인 오리지널리티를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그 결과물인 <The Auditorium Vol. 1>은 지금까지의 파트너십에 있어 분명한 이정표이자, 가치 있는 빈티지이다.





BANDO STONE AND THE NEW WORLD

TRACKS

1. H3@RT\$ W3RE M3@NT TO F7¥
2. Lithonia
3. Survive (Feat. Chlöe)
4. Steps Beach
5. Talk My Shit (Feat. Amaarae, Flo Milli)
6. Got To Be
7. Real Love
8. In The Night (Feat. Jorja Smith, Amaarae)
9. Yoshinoya

10. Can You Feel Me (Feat. Legend)
11. No Excuses (Feat. Ludwig Goransson)
12. Cruisin' (Feat. Yeat)
13. We Are God
14. Running Around (Feat. Fousheeé)
15. Dadvocate
16. Happy Survival
17. A Place Where Love Goes

2024.07.19

차일디쉬 감비노(Childish Gambino)가 새 앨범을 냈다는 소식을 들으면 늘 기분이 조금 이상해진다. 그가 Frank Ocean이나 A\$AP ROCKY 수준의 치명적 과작을 일삼거나 Lana Del Ray와 같은 유의 유별난 다작을 선보이는 것이 아닌데도 그렇다. 필자가 보기엔 그런 위화감은 일차적으로는 그의 직업적 특질에서 찾 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의 차일디쉬 감비노는 그 스스로의 음악보단 영상 연출자의 이면으로서 더욱 인식되는 것처럼 보인다. 'Redbone', 'This Is America'와 같은 소수의 약진을 제외하면 차라리 그의 앨범이 음악에 전념한 이의 기록이라기보단 영상 연출자, 작가, 코미디언에서의 일탈로 느껴질 지경이다. 따라서 그의 신보를 염두에 두는 일이 괴로워진다. 마치 새 앨범 커버를 확인하고, 음악 어플로 들어가 곡 목록을 보고, 적당한 시간에 앨범을 플레이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교교한 기대와 불안들이 진득한 물감처럼 뒤섞이는 기분이다. 이 사람의 작업물에는 그러한 종류의, 조금은 이상한 오류와 기이함들이 종종 서려 있다. 그러나 오해해선 안 될 점. 필자는 여기에 더해 단순히 소름돋는 화법으로 구사하는 그의 블랙 코미디 분위기나 과장된 캐릭터성을 늘어놓으려는 것이 아니다. 차일디시 감비노의 음악은 때때로 개성이 넘치고, 창의적으로 흥겹고, —<"Awaken, My Love!"> 같은 앨범에서는— 소울풀한 장르 섞기를 자행하지만 그것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거기에 보다 균원적인 위화감의 원흉이 있다. 물론 <Bando Stone and The New World>도 다르지는 않다. 이 앨범이 감비노가 제작한 영화의 사운드트랙이니, 그가 동명의 영화를 제작했다느니, 차일디쉬 감비노로서의 은퇴작이니(이건 The Weeknd가 앞으로 Able Tasfaye로 활동하겠다는 말보다도 큰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다.



우선되는 것은 결국 음악이다. 필자는 감비노의 음악이 좋다는 사람들은 많이 보았지만 그의 앨범이 명반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이들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기이한 일이다. 큼지막한 싱글 두 건(물론 "This Is America"와 "Feels Like Summer"을 말하는 것이다)을 제외하고 그는 모든 음악들을 앨범 단위로 내왔기 때문이다. 앨범의 수록곡은 좋지만 앨범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뻔한 공식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물론 맞다. 하지만 감비노의 경우 그 공식이 조금은 안타깝게 적용 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다. 그는 매 앨범에서 독특한 사운드와 충분히 매력적인 곡 전개, 진행, 장르 혼합을 선보이고도 지루하고 피로한 마무리를 짓는다. 혹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의 앨범은 초중반부까지 듣다가 하차해야만 만족스러운 감상을 이끌어낸다. 요지는 감비노가 선보이는 그 독특함과 매력이 앨범 내에서는 극악스러운 동어반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감비노는 독특함을 반복시켜 지루함을 도출시키는 데에 특출난 재주가 있다. 그 점에서 감비노의 앨범을 명반의 위치에 올려놓기 위해 필요한 건, 세인이 말하는 Kanye 사단에 필적하는 프로듀서진이나 귓가에 메아리치는 <Yeezus> 풍 샘플링보단 Rick Rubin의 앨범 구성 능력에 가까울 것이다.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빙빙 돌리지 않고 직서적으로 말하자면 차일디시 감비노는 완급조절을 극악스럽게 못 한다. 이것이 또 하나의 문제다. 구체적인 예. 감비노는 "Me and Your Mama"라는, 보기 드문 감탄스런 인트로 뒤에 "Have Some Love"와 "Boogieman"을 배치해 내향적이고 감상적인 분위기를 깨뜨리더니, 그 다음엔 뜬금없이 "Riot"과 "California" 사이에 "Redbone"을 넣어 흥겹고 유쾌한 분위기를 망친 사람이다. 혹은 <3.15.20>에서는 그냥 전 앨범을 균일한 분위기 속에서 흐르도록 내버려두었다. 들쭉날쭉하거나 지루하다. 이것이 감비노의 '음악'이 아닌 '앨범'이 갖는 치명적인 문제점이다. 그래서 그의 앨범을 논할 때 어떤 곡이 어떻게 좋았는지를 논하는 것은 사실 주요한 의제가 되지 못한다. 앨범의 구성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아니면 적어도 어느 수준까지는 살렸는지를 이야기한다. 또는 그냥 덮어놓고 차일디시 감비노의 본래 직업에 관해 말하거나 앨범의 테마, 피처링을 논할 수 밖에 없다. 달리 말하면 감비노의 앨범에서 음악이 얼마나 좋았는지에 관해 호평을 늘어놓는 것은 더 이상 유의미한 일이 아닌 것이다. 그건 <Because the Internet> 때나 유효한 것이었다. 물론 <Bando Stone and The New World> 역시 마찬가지다.

인트로 "H3@RT\$ W3RE M3@NT T0 F7¥"은 줄곧 <Yeezus>적 톤앤매너와 현란한 신스로 청취자들을 현혹하고, 딱 거기까지의 역할만 수행한다. 'Survive'의 클래식풍 아르페지오나 "Steps Beach"의 산뜻하고 감미로운 어쿠스틱 분위기는 바깥을 산책하며 듣기엔 제격이지만 다소 뻔한 구석이 있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운 편이다. 그것보다 도입의 음악에 관해 구태여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건 "Lithonia"일 것이다.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락 발라드 프로덕션, 거의 My Chemical Romance가 연상될 정도의 내지르는 보컬과 정열적인 분위기는 가히 전반부의 백미라고도 부를 수 있을 정도이다. 물론 어떻게 보면 뻔한 스타일의 곡이지만, 감비노 특유의 장르를 가볍게 뛰어넘는 포용성이 잘 드러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다. 문제는 이렇게 음악의 좋은 점들을 아무리 이야기해보았자 이 사람이 가진 고질적 유기성 결여, 완급조절의 부재는 그대로라는 것이다. 감비노는 다양한 장르의 전형들을 늘어놓거나 퍽 감동적으로 섞어내는 데엔 능하지만, 그 것들을 깔끔하고 정돈된 형태로 제시하는 일엔 관심이 없거나 그냥 포기해버린 것처럼 보인다. 중반부로 넘어가도 이런 점은 똑같거나 더 나쁜 형태로 진행되어서, 뻔한 드레이크식 힙합 "Talk My Shit", 실험적 신스 풍취가 독특한 "Got To Be", 희망적 팝 분위기의 전형 "Real Love"와 <Starboy>의 분위기 일변도를 거의 훔쳐온 것처럼 느껴지는 "In The Night"가 어지럽게 뒤섞이다가 통한의 힙합 뱅어 "Yoshinya"를 힘겹게 뱉어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정리가 안 된 느낌보단 차라리 혼돈이라고 부르고 싶을만한 이 참담한 유기성에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각 음악 장르가 가진 장점의 혼합이 아니라 그저 정신없음일 것이다. 안타깝게도 감비노는 <3.15.20>이나 <"Awaken, My Love!">가 가졌던 문제를 극복하기는커녕 더 다양한 장르와 뻔한 음악들을 통해 문제를 심화시킨 모습을 보여준다. 마치 2010년대 후반과 2020년대 초반에 유행하던 힙합, 알앤비, 인더스트리얼, 팝의 가장 뻔한 전형들을 짊어온 버전의 <"Awaken, My Love!">를 듣는 기분이다. 솔직히 이야기해보자. 우리는 <Bando Stone and The New World>에서 그런 괴로운 음악들을 듣고 싶지는 않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앨범의 후반부가 퍽 한 분위기로 흐르는 감이 있다는 것이다. 7분씨이나 늘여가며 앨범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노정하는 "No Excuses"의 역할도 있겠지만 균등한 신스 베이스를 바탕으로 노련한 프로덕션을 선보인 "Cruisin'", "We Are God"의 흐름은 자연스럽고 들쭉날쭉한 느낌을 줄여냈다. 문제는 곡들 자체가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느낌은 주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전작의 "00.00"을 셀프 샘플링한 "We Are God"이 그나마 눈에 띠는 편이지만 그 뒤로 이어지는 "Running Around", "Dadvocate" 같은 곡들은 그것들이 왜 차일디시 감비노의 앨범에 수록되어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만큼 안전하고 편평하며 전형적이다. 후반부에선 지질한 위화감의 원흉이 유기성이 아니라 음악성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앨범은 그대로 뻔한 아웃트로를 지나 갑자기 끝나버리고, 어딘가 깊은 뒷맛만을 남긴다. 솔직히 말해 만족스러운 앨범의 끝은 아니다. 차일디시 감비노로서의 마지막 앨범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쥐기엔 역부족인데다 영화의 사운드트랙으로써도 특출난 데는 없다.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이 앨범의 번잡한 유기성이 그저 '사운드트랙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감비노는 앨범 <Bando Stone and The New World>를 가사와 내러티브가 존재하는 한 흐름의 앨범으로 구성했고, 그건 Hans Zimmer나 Jonny Greenwood, Ludwig Göransson, Alexandre Desplat의 사운드트랙 앨범들과는 접근법에서부터가 다르다. 이 앨범은 사운드트랙이라서 유기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기성이 별로인 앨범을 사운드트랙으로 삼은 것에 가까운 것이다. 말하자면 감비노는 이 앨범의 전반부에서는 <"Awaken, My Love!">의 취약점을, 후반부에서는 <3.15.20>의 단점을 담아놓고 그 사이를 다소 저열하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로 채워놓았다. 물론 그 단면엔 "Lithonia", "Yoshinoya", "Step Beach", "Cruisin'" 같은 감탄스런 순간들도 있다. 이야기되어야 하는 점은 그 순간들이 어떻게 '앨범으로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 부분이야말로 감비노가 Donald Glover로서건, 차일디시 감비노로서건 간에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제가 아닐까, 필자는 생각한다.



TRACKS

1. KOTMS II INTRO
2. ULTRA SHXT
3. SET IT
4. HOT ONE
5. BLACK FLAG FREESTYLE
6. HEADCRACK INTERLUDE
7. G'Z UP
8. LUNATIC INTERLUDE
9. SKED

10. CHOOSE WISELY INTERMISSION
11. COLE PIMP
12. WISHLIST
13. HIT THE FLOOR
14. HOODLUMZ
15. KOTMS II OUTRO

2024.07.19



사실상 남부 힙합은 씬의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트랩(Trap), 멤피스 랩(Memphis Rap), 풍크(Phonk) 등 2010년대 중후반에서 2020년대 현재까지도 차트에서 심심찮게 남부 힙합의 유산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간편한 형식만으로도 자극을 긁어낼 수 있는 특성 탓에 필자를 포함한 다수가 가장 좋아하는 힙합 장르이기도 하다. 무수한 힙합 너드들이 "Ultimate"의 후렴을 외치고 다녔던 먼 옛날, 덴젤 커리(Denzel Curry)는 이러한 남부 힙합의 대표주자로 화려하게 강림해 내고야 만다.

<Imperial>에서 태동한 야만성부터, 역대 최고의 트랩 앨범으로도 꼽히는 <TA13OO>까지. 하지만 바로 전작, <Meet My Eyez See Your Future>과 같은 사례만 봐도 덴젤 커리는 비단 남부 힙합 하나에만 국한되어 있는 래퍼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랩, 아니, 음악을 잘한다. 그리고 동명 믹스테이프의 후속작을 자처한 본작, <King of the Mischievous South Vol. 2>(이하, KOTMS II)는 다시 한번 남부 힙합에 관한 향수를 재현하며 리스너들을 자극한다. 다만, 간편한 형식만으로 우리에게 달려들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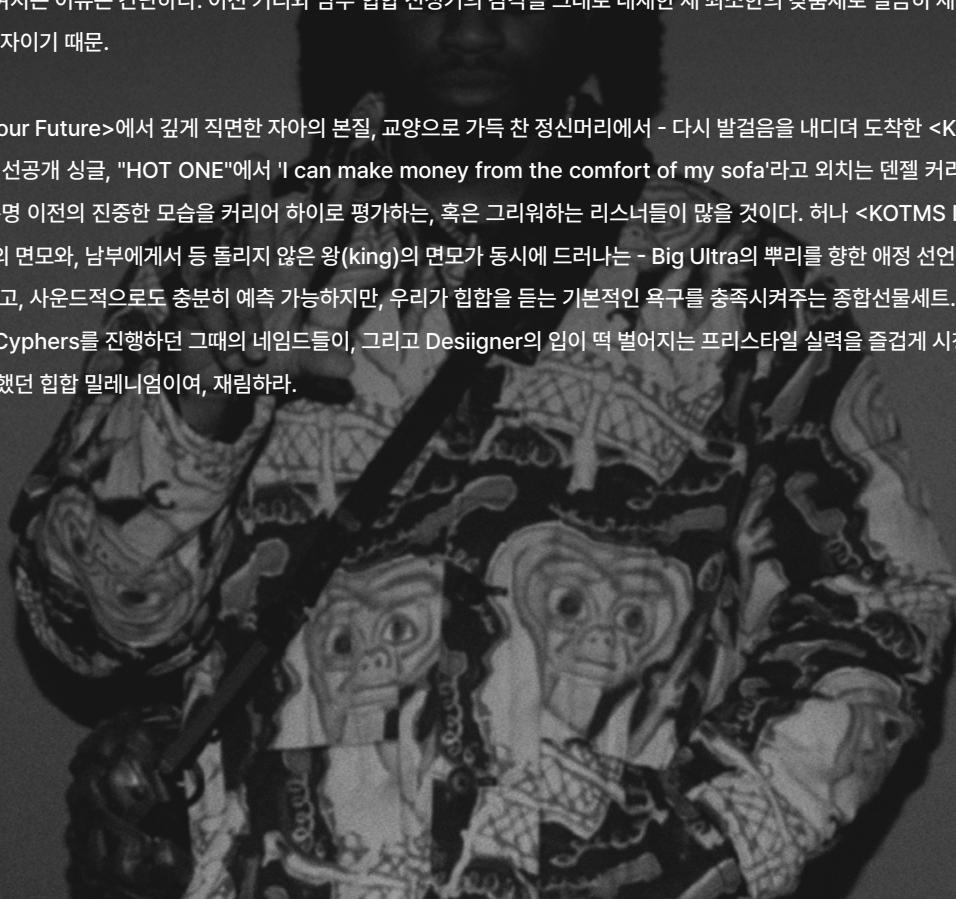
'Reppin' that ULTRA'라는 읊조림과 함께, 스스로가 속한 크루 'Ultraground'와 자신의 페르소나 'Big Ultra'를 예찬하며 시작되는 앨범은 역사에 길이 남을 힙합 앨범을 만들어야겠다는 야심보다는 하이프 본연에 충실히다. Key Nyata, Maxo Kream부터 Ski Mask the Slump God, A\$AP Rocky까지 컴필레이션 앨범이라 불려도 어색하지 않을 잔칫상이 펼쳐진다. 심지어 인터루드 트랙들마저 게스트 Kingpin Skinny Pimp에게 자리를 내준다.

소문난 잔치인 만큼 퀄링 트랙 역시 포진해있는데, 이미 선공개된 트랙 "HOT ONE"부터 말할 것도 없다. 특히 루퍼먼(Looperman)에서 구한 무료 샘플에 풍크 사운드를 접목시킨 "LUNATIC INTERLUDE"에서 "SKED"로 이어지는 흐름은 단연 앨범을 대표할 만한 날 것의, 동시에 정제된 Big Ultra의 캐릭터성을 보여준다. 덴젤 커리 특유의 - 속된 말로 개처럼 뱉는 - 래핑과 혹메이킹 실력 역시 여전하다. 특히 과거의 그와 현재의 그를 동시에 엿볼 수 있는 트랙, "WISHLIST"에서 보여주는 발군의 워드플레이와 혹은 커리가 얼마나 <KOTMS II>에서 재미를 중시하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준다.

다만 Ty Dolla \$ign이 가세하며 "COLE PIMP"로 시작되는 후반부 등과 같이 피로해지는 구간이 군데군데 분명 섞여있다. 본작에서 10번과 11번 트랙을 덜어냈으면 어땠을까 할 정도로, Ty Dolla \$ign은 잘 달려나가던 경주마에 채찍을 부드럽게 스팽킹하며 텐션을 급격히 저하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제동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이어지는 트랙들에서 덴젤 커리는 남은 에너지를 후회 없이 폭발시킨다. 특히 "HOODLUMZ"에서 A\$AP Rocky의 래핑은 왜 그가 <DON'T BE DUMB>을 주구장창 미루는지 궁금할 정도이다. 앨범 전반적으로는 인터루드 트랙들과 언급한 호화급 게스트들이 이를 성공적으로 상쇄시키며 에너지 유지에 공헌한다. 앨범 중반부에 6, 8, 10 - 한 트랙 단위로 전개되는 인터루드는 산만하다 비판받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기형적이라 신선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어쩌면 <KOTMS II> 자체가 그의 디스코그래피 중에서도 숨을 돌리는 인터루드 역할을 자처한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트래퍼(Trapper)들은 언제나 선망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잔혹함을 어느 정도 가공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특유의 음습함은 언제나 남부 힙합에서 강조되어야 할 지점이다. 하지만 똑같이 음침하기 그지없는 파생 장르 호러코어(Horrorcore)와는 반드시 차별점을 두어야 한다. A24의 호러 아트 필름이 주는 미학과 VHS 싸구려 필름이 주는 미학의 차이랄까. 덴젤 커리는 다소 후자에 비중을 주다 점차 이에 아트 필름을 코팅시켜왔지만, 이번 작은 아트 필름을 코팅시킨 VHS에 가깝다. 즉, 본작이 즐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전 커리와 남부 힙합 전성기의 감각을 그대로 내재한 채 최소한의 갖출새로 멀끔히 세상에 나온, 정말 간만의 웰메이드 남부 힙합 선물 상자이기 때문.

<Meet My Eyez See Your Future>에서 깊게 직면한 자아의 본질, 교양으로 가득 찬 정신머리에서 - 다시 밸걸음을 내디뎌 도착한 <KOTMS II>는 다소 옆걸음 질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선공개 싱글, "HOT ONE"에서 'I can make money from the comfort of my sofa'라고 외치는 덴젤 커리의 모습은 본질적으로 전작과는 괴리감이 있다. 분명 이전의 진중한 모습을 커리어 하이로 평가하는, 혹은 그리워하는 리스너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KOTMS II>는 뻔한 도약을 하지 않는 악동(mischiefous)의 면모와, 남부에게서 등 돌리지 않은 왕(king)의 면모가 동시에 드러나는 - Big Ultra의 뿌리를 향한 애정 선언이 듬뿍 담긴 앨범이다. 암에 가득 찬 앨범도 아니고, 사운드적으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만, 우리가 힙합을 듣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종합선물세트. 이를 듣고 있자 하니 문득 2016 XXL Freshman Cyphers를 진행하던 그때의 네임드들이, 그리고 Desiigner의 입이 떡 벌어지는 프리스타일 실력을 즐겁게 시청하며 깔깔거리던 한때가 그리워지기도 한다. 찬란했던 힙합 밀레니엄이여, 재림하라.



PORISHEAD



TRACKS

1. Mysterons
2. Sour Times
3. Strangers
4. It Could Be Sweet
5. Wandering Star
6. It's A Fire
7. Numb
8. Roads
9. Pedestal
10. Biscuit
11. Glory Box

1994

DUMMY

레비아탄은 정의되지 않는다. 반짝이는 비늘로 덮인 거대한 고래일 수도, 길이 30미터 가량의 악어일 수도, 혹은 또 다른 무엇일 수도 있다. 불을 토해내고 연기를 뿜으며 눈에서 빛을 내는... 그에게는 태양을 잠깐 삼켜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너는 낚시로 레비아단을 낚을 수 있느냐?" "땅 위에 그와 같은 것이 없으니 그것은 무서움을 모르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 읊기 41장

페니키아의 전설 속 괴물. 여느 전설이 그렇듯 실체 없는 껌데기에 불과하지만, 역사의 흔적이 그려하듯 연약한 인간 내면의 가장 큰 적인 공포와 우울은 레비아탄을 실재의 영역에 가깝게 이끌어냈다. 구약 성경의 시편과 이사야서에는 레비아탄의 기시감이 돌아나고, 페니키아 바닷길의 사공들은 누구의 손길 없이도 벳머리를 멈춰세웠다. 두려움은 알지 못하는 존재를 만날 때 가장 거대해진다. 이때 인간은 가장 날카롭고 총명해지며, 미지로 지어낸 환상의 마네킹을 마주한다. 누군가는 책 프로스트를, 누군가는 샌드맨을, 누군가는 담피르를, 누군가는 님프를. 흔히 꿈속의 존재로 일컫는 이름들이다. 하지만 소수의 몇은 구름에 잠긴 백색 마네킹 위를 넘어서고, 매혹적이며 감각적인 자태를 그려내곤 한다. <Dummy>는 그 대면에서 상대한 괴악함과 풍성함을 침전시킨 결과물로서 탄생되었다. 수많은 기라성들이 저마다의 연주로 영민함을 끽피운 90년대의 한가운데에서, 페니키아와 달리 영국 브리스톨의 전설은 활자의 영역을 벗어나 역사로 남으며 전해지고 있다.

포티스헤드(Portishead)의 결성은 분명 Massive Attack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루어졌지만, 이 사실만으로는 결코 포티스헤드를 모조품으로 결론짓게 만들 수 없다. <Dummy>의 색채는 당대의 어떠한 음악과도 염연히 거리를 두었다. 흔히 트립합이라는 장르 범주로 묶이곤 하는, 3년을 앞선 Massive Attack의 <Blue Lines>는 분명 동시대 최고의 혁신이었으나, "Safe from Harm"과 "Unfinished Sympathy" 등에서 느낀 기쁨과 경쾌함은 운데간데없이 묘연하다. 그 빙자리는 침착하고, 암전하며, 또한 뭇지 않은 강렬함으로 가득하다. 제프 배로(Geoff Barrow)의 악조와 리듬감 위에 스산하고 음흉한 망토를 뒤집어 쓴 베스 기번스(Beth Gibbons)는 가냘프고 음습하게 요동치는 목소리를 떨어뜨린다. 앨범의 퀄링 트랙으로 뽑히는 "Sour Times"와 "Glory Box"는 매우 직설적인 예시다. 느와르 필름과 스너프 필름의 경계를 오가는 배경음악의 오묘함. 그 자태는 쉽게 비유할 수 있다.

초콜릿 케이크. 준비물로는 초콜릿, 설탕, 버터, 밀가루, 계란, 생크림, 코코아파우더. 온 재료를 끓이고 녹여서 비주얼 플레이팅으로 기워붙여낸 디저트. 포근하고 도 아리게 혀끝을 감싸는 앙금. 쇠꼬챙이에 맥없이 퀘뚫리는 연약한 밀가루 살결과 겹겹이 쌓인 구멍. 바삭하게 으스러지는 곁면과 보드랍게 짓눌리는 폭신한 속살. 달콤씁쓸함과 가장 가까운 쌍둥이. 으레 케이크의 생애로는 쇼윈도 너머에서 추위에 벌벌 떠는 시간을 떠올리곤 하지만, 보다 앞서 당초에 분산되어 있던 엔트로피를 융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뜨거운 열감이 필수적이다. 가장 더운 열대의 열매는 완전히 식었을 때 제일 달콤하기 때문이다. 닿는 순간 손까지 익어버릴 뜨거운 오븐 속의 사건사고들은 유리창 너머에서 그 화학작용을 엿볼 수 있다. 콜라주의 레시피는 지구본 주위를 빙빙 돈다. Lalo Schifrin의 "Danube Incident", Weather Report의 "Elegant People", War & Eric Burdon의 "Magic Mountain", Isaac Hayes의 "Ike's Rap 2". 그 외의 다수가 크게 재즈, 평크, 소울에서 가져온 레시피들이다. 그 위로 Geoff의 교정과 가필을 덧대어 Beth의 음성으로 싸늘하게 옥죄어내면 푸르고도 어두운 잿빛의 <Dummy>가 완성된다.

이 조립과 해체는 미녀 조수의 사지를 분리하고 끼워맞추는 마술쇼를 방불케 한다. 수없이 늘어선 샘플링의 조각들. 지극히 올드스쿨한 소스와 그렇지 않은 드럼 루프. "Wandering Star"와 "Numb"의 턴테이블 스크래치. 파편이 찢어지는 퍼커션의 농도 짙음. 노이즈와 베이스. 원류로부터 가져왔으나 그 무엇도 암전히 본래의 형체로 남겨두질 않는다. 포티스헤드 음악의 정서와 닮은 이 자학적 파괴는 낙엽을 떨어뜨려 새 잎이 돌아나는 아폽토시스와도 같다. 도마 위에는 어절의 밀집과 구절의 휘몰아침. 구속적인 루프의 들썩거림. 휘황찬란한 제스처의 끝마무리. 관객들의 박수갈채와 환호성. 그 외 등등. 들뜨고 활발한 자극들의 다수는 스러지듯 소거당한다. 그 위는 여백의 장식이 들어차고, 도화지의 흰 면을 빗겨나간 채로 덧칠에 덧칠을 거듭할 뿐이다. 지극히 다습한 악곡을 건조하게 닦아내는 과정. <Dummy>를 이끄는 음산함의 출처란 이 뒤집힌 천칭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과연 <Dummy>란 무엇인가. 힙합이라 칭하기엔 너무나 처절하고, 일렉트로닉이라 칭하기엔 너무나 둔탁하며, 락이라 칭하기엔 너무나 고요하다. 드넓고 포괄적인 용어로 요약한다면 나쁜하고도 여유로운 다운템포의 얼터너티브 정도가 마지노선으로 보인다. 무엇인들 어떠할까. 앨범 커버에 담긴 자체 제작한 단편 영화 [To Kill A Dead Man]의 스틸컷처럼 공허함 속에 몸을 뉀인 채로 암전히 받아들여야 할뿐인데 말이다. 가히 '트립'에 비견하는 그 몽환적인 흡인력이 참으로 신기할 뿐이다. 멜랑콜리의 미학이란, 과연.

여느 예술가의 사명과 스테레오타입이 그렇듯 우울의 집요함은 곧 원동력이 된다. 하지만 그 엔진의 기름때를 그저 썩 메스껍다고 표현하기엔 너무나 독특한 향기가 아쉬울 따름이다. 수천 년 전의 환상 속 괴생명체가 오늘날까지 구전되는 이유. 흑빛 과실이 빈곤의 성지에서 텁尼克의 상징이 되는 이유. 피와 눈물을 끓인 레시피가 달콤하기까지에 이르는 이유. 본작이 블랙뮤직 매거진에서 당당히 클래식의 자리를 뛰어넘는 이유. 그 수많은 이유만이 곧 <Dummy>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DAYS BEFORE RODEO

Classic Album Review

by Editor denim

TRACKS

1. Days Before Rodeo The Prayer
2. Mamacita
3. Quintana Pt. 2
4. Drugs You Should Try It
5. Don't Play
6. Skyfall
7. Zombies
8. Sloppy Toppy
9. Basement Freestyle
10. Backyard
11. Grey
12. Bacc

2014.12.01

DAYS BEFORE RODEO

TRAVIS SCOTT



어느샌가 명반이란 칭호가 무분별하게 훌뿌려지며 그 의미가 희석된 가운데, '클래식' 앨범이 갖는 무게감에 대해 다시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직역하자면 '고전'이란 의미의 이 단어는 단순히 완성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닌, 그야말로 세월과 서사가 깃들어야 완성되는 까다로운 조건을 갖춘다. 한 시대를 열고 장르를 개척하는 등 거대한 음악사에 조그만 흔적이라도 남겨야만 우리는 비로소 그를 클래식이라 정의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완성도를 떠나 존재의 가치만으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앨범도 과연 있을까? 필자는 '그렇다'라고 답하며 트래비스 스캇 (Travis Scott)의 두 번째 믹스테잎 *<Days Before Rodeo>*를 대표적인 예시로 꼽고 싶다. 이는 비록 그의 전작 *<Owl Pharaoh>* 보다 나중에는 틀림없지만, 노골적인 모방과 미숙한 랩 실력, 그리고 가벼운 주제 의식 탓에 걸작으로 분류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수준으로만 따지면 스캇의 정규 데뷔작 *<Rodeo>*나 블록버스터 *<ASTROWORLD>*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물론, 그의 전체 디스코그래피 중 하위권에나 어울리는 작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클래식으로 회고되는 건 단연 시대를 풍미 할 한 슈퍼스타의 탄생, 그 서막을 상징하기 때문일 것이다. 8만 명의 관중과 함께 땅을 릴 때 시전하는 스캇의 현재를 아는 상태에서 그의 미비한 시작을 돌아보는 것은, 마치 어릴 적 즐겨보던 소년 만화의 첫 장을 다시 펼쳐 훗날 금의환향할 주인공의 분투를 바라보는 느낌이다. 어딘가 촌스럽고 온갖 미숙함이 눈에 띄지만, 무작정 저지르고 깨지기를 반복하는 모습은 그 끝을 아는 우리에게 그저 아름답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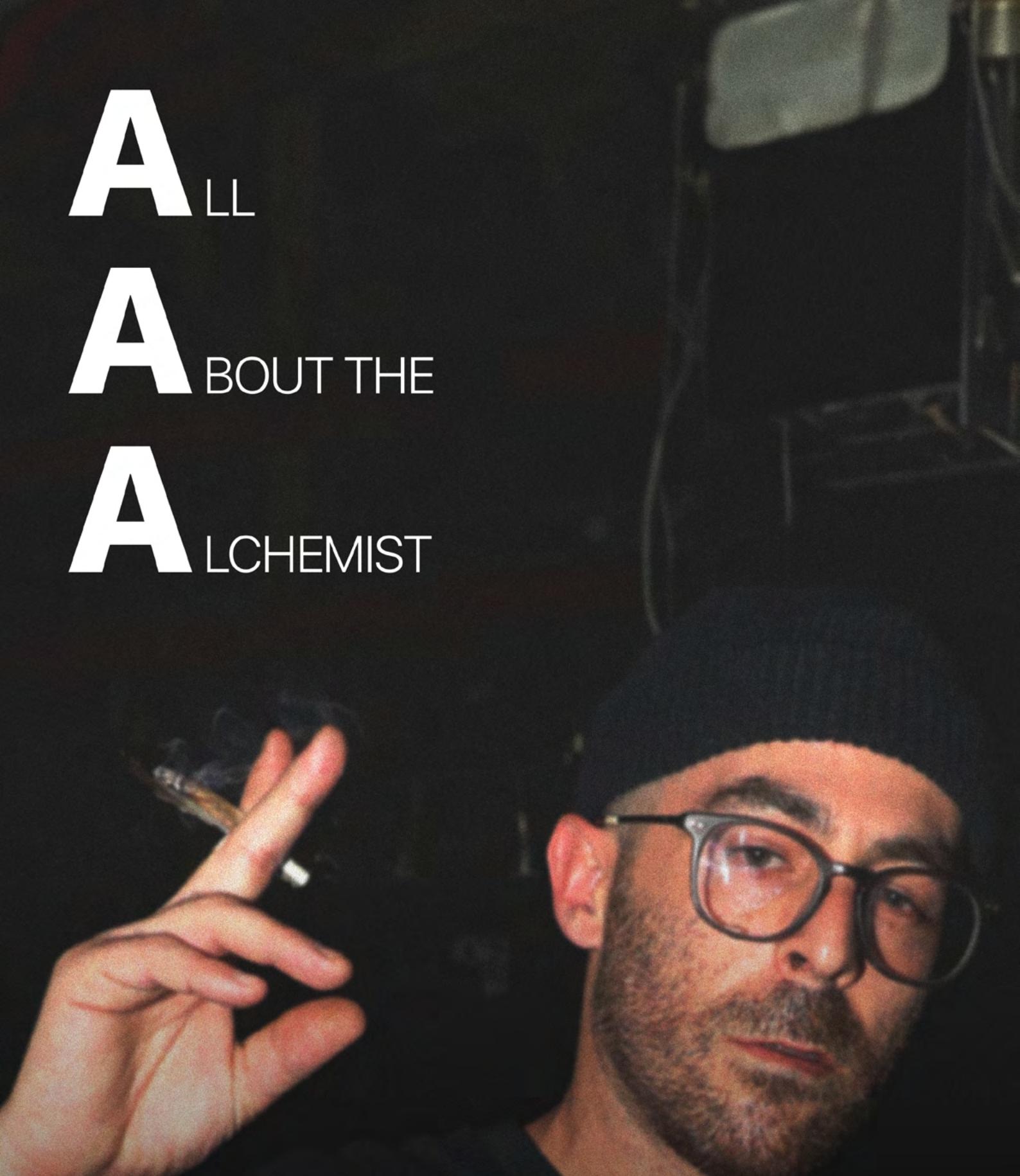
*<Days Before Rodeo>*의 작업기는 스캇에게 있어 음악적 색을 찾는 여정이기도 했지만, 더욱 포괄적으로는 아티스트로써의 자아를 확립시키는 시기였다. 어릴 적 프로듀서로 두각을 나타내었으나 더욱 방대한 꿈을 꾸었던 그는 멘토인 Kanye West의 발자취를 따라 한 명의 비트메이커를 넘어 플레이어가 되기를 고수했다. 이를 이루고자 그가 택한 첫 변화는 본인의 부족함을 메꿔줄 동료들을 색출하고 그들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강박적으로 모든 트랙의 작곡가로 참여했던 *<Owl Pharaoh>* 때와는 달리, 이번의 그는 FKi, Metro Boomin, Lex Luger처럼 색과 강점이 뚜렷한 이들을 기용하여 스스로는 총괄의 역할에 치중하기로 한다.

작곡가로서 자존심을 삼키고 내린 과감한 선택은 이전까지는 스케치 단계에 머물러야만 했던 사이키델릭 사운드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Southside나 Vinylz와 같이 멜로디에 특화된 프로듀서들은 Phillip Glass, Marvin Gaye 등의 장르 불문 샘플들을 찾아 오디오 파일을 늘어뜨려 115 BPM 언저리의 몽환적인 앰비언스를 구현해 냈다. 여기에 스캇은 본인의 자부심이자 힙합의 핵심이라 지금까지도 당부하는 드럼을 직접 얹어 트랙 간의 차별성을 둔다. 봄뱁, 더티 사우스, Chopped and Screwed와 같은 다양하고 변칙적인 리듬 패턴은 자칫 진부해질 수 있는 트랙 리스트에 적절한 변화를 부여한다.

사이키델리아를 주축으로 앨범은 전작에선 부재했던 유기성을 갖추게 됨과 더불어, *<Days Before Rodeo>*라는 제목이 의미하듯 후속작 *<Rodeo>*의 기반이 되는 요소들을 선보인다. 그 예시로 전자 오르간 아르페지오 위주의 멜로디를 구사하는 "Don't Play"는 아직도 많은 팬의 원픽으로 꼽히는 "90210"와 깊은 유사성을 띤다. 또한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는 "Drugs You Should Try It" 같은 경우, 그 공허한 멜로디는 "Pornography"나 "Maria I'm Drunk"와 직결되고 스캇의 오토툤 섞인 싱잉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로서 자리 잡게 된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돋보이는 트랙은 이견 없이 "Mamacita"일 테니, 이는 *<Rodeo>*는 물론 후속작인 *<Birds in the Trap Sing McKnight>*에 실려도 이질감 없을 정도의 작품성을 자랑한다. 고의적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스캇의 고향인 텍사스를 연상시키는 웨스턴 무드의 일렉 기타 스텟(stab) 모티프, 총소리 같이 둔탁한 하이햇과 낮게 깔리는 디스토션 베이스를 배경으로 울려 퍼지는 스캇의 취한 듯한 혹은 그야말로 아이코닉하다. 나아가, 충격적인 박자감을 선보인 Young Thug과 본인의 인생벌스를 뺏어낸 동시적재적소에 애드립을 섞어낸 Rich Homie Quan의 피처링은 곡의 완성도를 한 층 더 높이기 위해 필요한 객원 보컬을 찾아내는 스캇의 우수한 감각을 증명한다. 그야말로 시대를 앞서간 사이키델릭 트랩의 교과서가 따로 없는 것이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트래비스 스캇은 소싯적의 우상인 Kid Cudi나 Kanye West와 견주어도 끌리기는커녕, 어느 쪽면에서는 그들을 능가하는 대형 아티스트로 성장하였다. 그의 어마무시한 상업적 성공 탓에 외려 예술적 성취와 힙합씬에 끼친 지대한 영향이 평가절하될 정도이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무대조차 수 차례의 리허설이 맷은 결실인 것처럼, 모든 업적은 수천 번의 시행착오가 낳은 결과이다. 과정의 단계에서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여느 자기계발서의 뻔한 머리말처럼 되어버렸지만, 이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드러날 경우 그 울림은 마음에 와닿는다. 결국 도약이란 완벽이 아닌 불완전에서 시작됨을 증명해 낸 스캇의 커리어를 돌아보고자 한다면, 그 시작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 작품: *<Days Before Rodeo>*이길 강력하게 권장한다.

ALL ABOUT THE ALCHEMIST



알케미스트(The Alchemist), 알란 마만(Alan Maman), 엉클 알(Uncle Al)까지 - 먼지 쌓인 레코드 속에서 귀중한 샘플을 찾아 황금으로 바꾸는 힙합의 연금술사. 당신이 그를 어떻게 부르든, 그가 21세기 힙합 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임은 분명하다. 또한 최근 드럼리스 트렌드의 부상과 맞물려 여러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가 주목받으며 근래 입문한 리스너에게도 익숙한 이름이 되기도 했다. 허나 그는 90년대 후반부터 동부 거울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꾸준히 실력을 쌓아 왔으며, 언더그라운드에서 주로 노닐던 2010년대 초반에는 '잊힌 프로듀서'라는 불경한 수식어가 붙기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가 지금까지 밟아 온 족적은 어떠한가? 정규 1집 <1st Infantry> 20주년 기념 커리어와 대표작들을 함께 되짚어보도록 하자.

1991-2004

Mobb Deep과 Nas의 부름을 받는 동부의 총아로

1998년 알케미스트와 DJ Premier, D'Angelo, J Dilla가 한 자리에서 찍은 전설적인 사진을 기억하는가? 알케미스트가 메이저 활동을 시작할 무렵 <Voodoo> 앨범에 실린 “Devil's Pie” 곡 작업을 하고 있던 DJ Premier는 우연히 들린 작업실에서 아직 새파란 신인에 불과했던 알케미스트를 만나 함께 블런트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눈다. 당시는 흑인 음악의 세 종주 사이에 무명 하나가 낀 모양새였으나, 알케미스트의 자신감 넘치는 사진은 어쩌면 일종의 자기예언이었을지도 모르겠다.

1990년대 초반 어린 나이로 힙합계에 뛰어들었다 실패를 맛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B-Real의 주목, 스승 DJ Muggs의 도움과 뛰어난 비트메이킹 실력으로 점차 자신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어 Mobb Deep의 <Murda Muzik> 참여를 계기로 Ghostface Killah, Big Pun, Nas에 이르는 동부의 거물들과 혼날 Eminem과 만나는 가교가 된 Royce da 5'9”까지 당대를 풍미한 전설들의 앨범에 비트를 보탰다. 2004년 내놓은 첫 정규 앨범 <1st Infantry>는 전기 알케미스트의 하이라이트다. 동부 래퍼들뿐만 아니라 당시 서부에서 한창 인기몰이 중이던 The Game, T.I.를 초빙함으로써 2000년대 초반 힙합 올스타나 다름없는 라인업을 구성한 것. 최초로 얼굴과 이름을 내걸고 발매한 작품의 성공 덕에 그의 커리어는 다음 장으로 접어든다.

대표작

Mobb Deep - “The Realest”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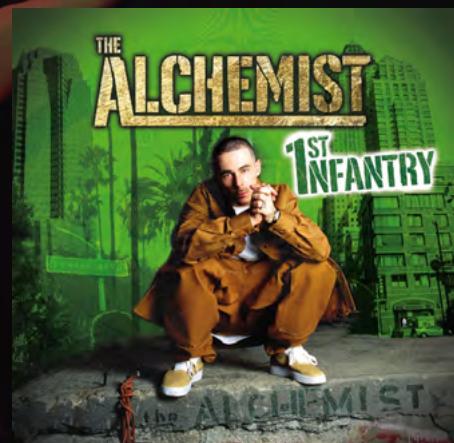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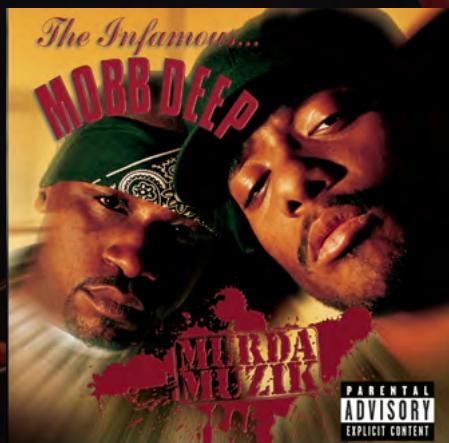
알케미스트는 이 비트로 곡을 녹음하던 날을 이렇게 회상한다 - “난 처음에 Havoc과 Prodigy를 한 자리에서 보지 못했어. 먼저 Havoc에게 비트를 들려주자 그가 “The Realest”에다 쓰면 되겠다고 했고, 나중에 Prodigy를 따로 만났을 때 그도 좋다고 하더라고. (중략) 한밤중 Prodigy가 전화를 걸어서는 “그 비트 기억하고 있어. 지금 바로 스튜디오로 와, 우리 거기다 녹음할 거니까”라고 하더라. 당장 장비를 케이스에 쑤셔박고 거기로 달려갔지.” 알케미스트의 비트는 Mobb Deep의 마지막 수작에 그렇게 아로새겨졌다. 심플한 루프 위 Prodigy와 Kool G Rap의 래핑만으로도 완벽한 곡.

Nas - “Book of Rhymes” (2002)

“Alchemist, you know me, man”라는 도입부를 들었을 때 알케미스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비록 히트곡은 아닐지언정, 솔리드하게 채워진 <God's Son> 속에서도 돋보이는 비트들은 그의 작품이었다. “Book of Rhymes”가 전형적인 블랙 작법이라면 동일 앨범에 수록된 “Revolutionary Warfare”는 2000년대 초반의 샘플링 트렌드 및 이미 출중했던 알케미스트의 샘플 선정 감각을 엿볼 수 있는 트랙이다.

The Alchemist - <1st Infantry> (2004)

거칠게 마감된 비트 위에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 내뱉는 자기 과시 가득한 래핑. “Boost the Crime Rate”, “D Block to QB”와 같은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 갱스터 랩의 표준이 담긴 앨범이다. 미주의 양극단을 대표하는 The Game과 Prodigy가 출신에 대한 구절을 주고받는 “Dead Bodies”, Nas와 Prodigy가 손을 잡은 “Tick Tock”, 알케미스트의 재능을 처음으로 알아본 B-Real의 “Bang Out” 등 데뷔 아래의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다.



2005-2012

Eminem에서 Lil Wayne까지, 영역의 확장

한편 알케미스트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오는데, 바로 Eminem의 기존 공식 DJ가 자리를 비우자 이를 이어받은 것이다. 알케미스트와 Eminem이 오랜 인연만큼 많은 곡을 작업하지는 못했지만, 훗날 <Music To Be Murdered By - Side B>에 수록된 "Stepdad"를 프로듀싱하는 등 만남을 이어간다. 신의 중심에 접근하는 알케미스트를 찾아온 다른 래퍼는 릴 웨인이다. 본래 알케미스트의 개인 앨범에 실릴 예정이던 한 비트를 원한 그는 해당 곡을 <Tha Carter III>의 리드 싱글로 낙점하기까지 이른다. 이는 바로 빌보드 100 차트에서 81위까지 오른 "You Ain't Got Nuthin"이다.

동시에 알케미스트는 Prodigy의 앨범 <Return of the Mac>의 총괄 프로듀서를 맡고 Madlib의 동생 Oh No와 그룹 Gangrene을 결성해 활동하며 기존의 궤도에서도 전진했다. 이어 2009년 내놓은 정규 2집 <Chemical Warfare>는 화려한 참여진을 갖춘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의 작품이다. 비록 첫 앨범의 "Hold You Down"처럼 차트인하는 곡은 없었으나 평단의 찬사를 받으며 성공을 지속한다.

대표작

Lil Wayne - "You Ain't Got Nuthin" (2008)

<Tha Carter III>를 더티 사우스 일변도로만 간주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 하나의 메인 루프를 유지하며 Fabolous가 가공할 벌스를 뱉은 전반부에서는 정석적인 붐뱁의 드럼을, 릴 웨인의 파트에서는 클랩 비트로 전환하는 구성이 인상적이다. 이는 릴 웨인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그의 엔지니어가 원래 비트 위에 즉시 프로그래밍한 것이라고.

The Alchemist - <Chemical Warfare> (2009)

알케미스트의 솔로 앨범이 대부분 짧은 볼륨인 현재 시점에서 보았을 때 더욱 흥미로운 음반. Three 6 Mafia와 Juvenile이 힘을 합친 "That'll Walk", 베테랑 Talib Kweli와 새파란 신인 Kid Cudi의 만남 "Therapy", Snoop Dogg & Jadakiss & Pusha T라는 가공할 라인업의 "Lose Your Life"까지, 수많은 스타가 친결한 가운데 알케미스트의 비트가 이 모두를 한데 끌어 냈다는 사실이 놀랍다.

Domo Genesis & The Alchemist - <No Idols> (2012)

드럼리스는 2020년대에 갑자기 튀어나온 장르가 아니다. 본작의 오프닝 "Prophecy"부터 "1985", "3rd Person", "Dean Martin Steaks"와 같은 후기 알케미스트 트랙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타 리프 + 최소화된 드럼이 포착되기 때문. 알케미스트가 Domo Genesis, Hodgy Beats를 비롯한 Odd Future 멤버들과 교류를 시작할 당시 나온 앨범으로 후일 협업하게 되는 Earl Sweatshirt, Freddie Gibbs가 피처링을 보탰다.



2013-2019

Boldy James와의 만남, Prodigy와의 이별

알케미스트의 최고 파트너는 누구인가? 커리어를 반으로 나누었을 때 전반부는 단연 Prodigy이고, 후반부에선 Boldy James를 꼽을 수 있다. 수신 곡을 함께하며 항상 완벽히 조화되는 비트와 래핑을 보여주는 조합이다. 퀸스 브릿지에서 이루어진 이들의 만남은 이 시기 홀륭한 합작 앨범 두 장(<My 1st Chemistry Set>, <Albert Einstein>)을 낳았다. Mobb Deep의 투어에 Boldy James가 오프닝을 맡음으로써 지속된 동행은 2015년 Prodigy의 “Off the Wall” 피처링으로 연결된다. 마치 그 옛날 Mobb Deep이 그러했듯 신예 아티스트를 도우며 계속된 두 남자의 교류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막을 내린다. 2017년 Prodigy가 불운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Havoc과 가장 슬퍼했을 이 역시 알케미스트였으리라. 훗날 인터뷰에서 역대 최고의 래퍼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알케미스트는 아무 망설임 없이 Prodigy의 이름을 댔다.

한편 현재까지 알케미스트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Griselda Records와의 만남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올드스쿨 블랙 복각을 지향점으로 삼은 이들에게 해당 장르의 잔뼈 굽은 프로듀서는 큰 도움이 되기 마련. 본격적으로 주류의 관심을 받기 전 발표한 수작 <FLYGOD>과 <Tana Talk 3>에도 알케미스트의 손길이깃들어 있다.

대표작

Prodigy & The Alchemist - <Albert Einstein>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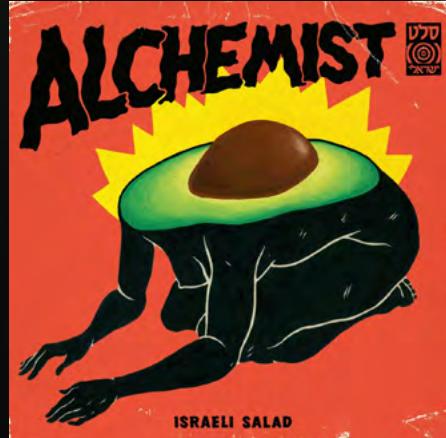
トン変化와 함께 점점 이전의 반짝임을 잃어 가던 Prodigy도 알케미스트의 비트 위에선 전성기로 회귀했다. 과거 Mobb Deep 시절보다 더 잘 맞는 듯한 둘의 합은 청자를 점차 어두운 심연으로 끌고 들어간다. 후배 Roc Marciano와 콜 앤 리스폰스로 주고받는 구절, “Confessions” 도입부 경찰 사이렌과 기타 리프 사이로 범죄의 현장을 묘사하는 순간, “Raw Forever”에서 끝마치는 라인을 뱉은 후 쏟아지는 박수 소리 등 Prodigy는 마지막 순간까지 영원한 갱스터였다.

The Alchemist - <Israeli Salad> (2015)

알케미스트 인스트루멘탈 앨범 중 제일 유명한 것은 <Rapper's Best Friend> 시리즈겠으나, 가장 아이코닉한 작품은 <Israeli Salad>다. 신에서 절대적 소수의 위치에 있는 유대인 태생으로 자신의 혈통을 음악으로 풀어내려는 시도이기 때문. 많은 샘플을 이스라엘 곡에서 가져왔으며, 히브리어 인사말("Shalom Alechem")과 전통문화("Za'atar Smoke")로 자신 있게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운다. 알케미스트의 타 비트 테이프보다 더 묵직한 질감을 자랑하기도.

Kendrick Lamar - "FEAR." (2017)

“meet the grahams”가 Kendrick Lamar와 알케미스트의 첫 협업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알케미스트는 “XXX.”의 현실 폭로와 “DUCK-WORTH.”의 되짚기 사이에서 Kendrick가 자신의 두려움을 고백할 수 있는 최적의 무대를 설계한다. 게토의 절망적인 현실을 노래한 24-Karat Black의 올드 소울 “Poverty’s Paradise”를 새롭게 빛내내 작품의 서사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곡이 탄생했다.



2020-2024

언더그라운드와 메인스트림을 한 손으로 저글링하다

Griselda가 형성한 드럼리스의 급물살을 타고, 알케미스트 역시 다량의 앨범에 참여하며 그 어느 때보다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다. Griselda 래퍼들의 대표작 크레딧에 빠짐없이 이름을 올린 데 더해 매년 여러 장의 합작을 일정 이상의 퀄리티로 만들어냈다는 것이 고평가의 가장 큰 요인이다. 샘플링을 주요 작법으로 유지한 채 자유자재로 형식을 전환하며 언더그라운드 거물 래퍼들과 함께한 앨범들은 단 한 장도 빼놓기 힘들 정도로 모두 훌륭한 퀄리티를 자랑한다. 후술할 음반을 제외하고도 Boldy James와 협업 세 장, 리스너들이 항상 고대한 조합인 Earl Sweatshirt와의 <Voir Dire>, 꾸준히 이어온 솔로 연작 <Rapper's Best Friend 6: An Instrumental Series> 등이 시기의 디스코그래피는 수작으로 가득하다. 마찬가지로 2020년대의 대표 프로듀서인 Metro Boomin과 Hit-Boy도 다작을 자랑하지만, 알케미스트의 압도적 작업량은 비교 불가할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디스곡의 단초가 된 '빅 3' 래퍼 모두에게 비트를 제공했다는 점도 흥미롭다. Drake의 "Wick Man", J. Cole의 "Stickz N Stonez", 그리고 신을 뜨겁게 달군 디스전의 하이라이트 "meet the grahams"까지 각 래퍼에게 맞춘 프로덕션은 작금의 유행이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니며, 알케미스트가 첫 전성기보다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리라는 증거와도 같다.

1991년 처음 힙합에 발을 들인 십대에서 어느덧 50살을 바라보는 관록의 프로듀서로 거듭나는 동안 유행과는 상관없이 하나의 우물만을 우직하게 파내 한 장르의 명인이 된 그의 성취는 막 이름을 알리던 시절 함께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었던 DJ Premier와 J Dilla에 버금가는 수준까지 다다랐다. 세상에는 아직 수많은 샘플이 존재하고 그의 연금술 또한 현재진행형이니, 그가 빚어내는 산물은 앞으로 더욱 환하게 빛을 내리라.



대표작

Freddie Gibbs & The Alchemist - <Alfredo>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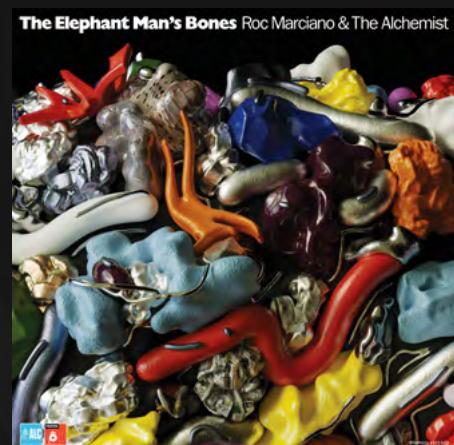
21세기 뒷골목 판 <대부>. 이미 Madlib과 함께 두 장의 블랙 명작을 만들어낸 바 있으며, 현대의 갱스터 랩을 대표하는 이인 Freddie Gibbs는 알케미스트에게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 주었다. 강렬한 기타 리프의 오프닝 “1985”부터 부드러운 샘플 루프 “Something to Rap About”, 거친 남자의 상처를 드러낸 “Skinny Suge”까지 최선의 시너지를 보여준 이상적인 1MC 1PD 앨범이다. 그해 그래미 어워드 최우수 랩 앨범에도 노미네이트되며 방점을 찍었다.

Armand Hammer & The Alchemist - <Haram> (2021)

앰스트랙의 대가 Armand Hammer와 알케미스트의 조합은 그 자체로 막대한 기대를 동반하기 마련, <Haram>은 이에 완벽히 부응한다. 섬세한 샘플 조각모음으로 긴장의 끈을 풀고 당기며 극과 극을 오가는 무드를 조성했으며 ELUCID 와 billy woods의 야성적인 래핑은 기존의 하드코어 힙합을 벗어나서도 여전하다. 최면술과도 같은 소리 사이로 엿어 나오는 가사의 실타래를 풀다 보면 어느새 이들의 기묘한 시너지에 중독되어 있을 것이다.

Roc Marciano & The Alchemist - <Elephant Man's Bones> (2022)

2012년 시작된 이들의 만남은 보다 완전한 형태로 <The Elephant Man's Bones>에서 구현되었다. 과거 프리 쇼의 일환으로 구경거리가 되었던 Joseph Carey Merrick, ‘엘리펀트 맨’의 이름을 따온 만큼 음험하고 불안한 비트에 Roc Marciano는 딱 들어맞는 랩으로 답한다. 뻔한 드럼리스 앨범을 생각했다면 “The Horns of Abraxas”를 재생하라. 괴이하게 울리는 드럼을 뚫고 나아가는 Marci의 래핑이 특유의 분위기를 배가한다. 2020년대 발매된 알케미스트의 콜라보레이션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어두운 작품이다.



Don't Hurry, **DON'T BE DUMB**

돈비덤 기다리기

패션 아이콘, 팝스타 리아나(Rihanna)의 파트너, 훌륭한 아트 디렉터, 예술적 집단, AWGE 수장까지. 에이셉 라키(A\$AP Rocky)를 수식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는 '래퍼'가 아닐까 싶다. 하지만 그 호칭이 무색하게 라기는 2018년에 발매한 <TESTING> 이후로 그만의 오리지널리티가 함유된 새 음악을 꺼내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음악 외의 기타 여러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뽐냈고, 그의 음악을 기다리는 팬들도 지쳐가고 있었다. 라기는 패션 디렉터로 데뷔한 지난 6월, 컬렉션 'American Sabotage'의 피날레 이후 박수갈채와 함께 등장했다. 데뷔를 자축하는 순간은 그리 길지 않았으니, 라기는 6년 만에 새 앨범을 발매할 것을 예고했다. 발매일은 2024년 8월 30일, 그 이름은 예상했던 대로 <DON'T BE DUMB>이다. 앞으로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DON'T BE DUMB>을 기다리며 이 앨범을 누가 함께했고, 어떤 과정에 있었는지 알아보려 한다.

왜?

<DON'T BE DUMB> 자체에 대한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라키가 차기작을 내기까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그를 대변해보고자 한다.

우선, 애당초 라기는 <DON'T BE DUMB>을 그의 차기작으로 계획하지 않았었다. <TESTING>이 발매되고 얼마 안 된 시점, 라기는 싱글을 하나 발표했다. 바로 Tame Impala의 곡을 샘플링한 "Sundress"로, 라기가 기존에 발매했던 음악에 비하면 멜로디의 비중이 더 높은 사이키델릭 밴드 사운드 트랙이었다. 이 싱글이 세상에 공개된 후 라기의 차기작에 대한 루머가 흘러나왔다. 이름은 <ALL \$miles>, "Sundress"와 유사한 밴드 사운드 위주로 사이키델릭한 앨범을 만들고 있다는 것과 커리어 초기에 라키와 함께 많은 곡을 작업했던 Clams Casino와 함께 클라우드 랩 위주의 앨범을 만들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 내용들이 어땠을지는 각 루머마다 다르다. 허나 라기의 팬덤 사이에서는 차기작이 <ALL \$miles>였던 것이 사실이고, 2021년에 유출 때문에 폐기했다는 것이 정설로 여겨지고 있다. 따지고 보면 <DON'T BE DUMB>은 약 3년 간 제작된 앨범인 셈이다.

물론, 라기는 이 기간 동안 음악 외엔 정말 모든 것들을 시도하며 외도 아닌 외도를 즐겼다. 구찌와 보테가 베네타의 캠페인 모델로 활동하며 패션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넓혀갔고, NIGO의 Human Made와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AWGE, 그리고 Pac Sun과 Vans, F1과 Puma 등 다양한 브랜드들의 협업을 이끌었다. 이에 만족하지 못한 라기는 아예 AWGE를 통해 자신의 컬렉션 'American Sabotage'를 공개했고 직업란에 패션 디자이너 항목을 추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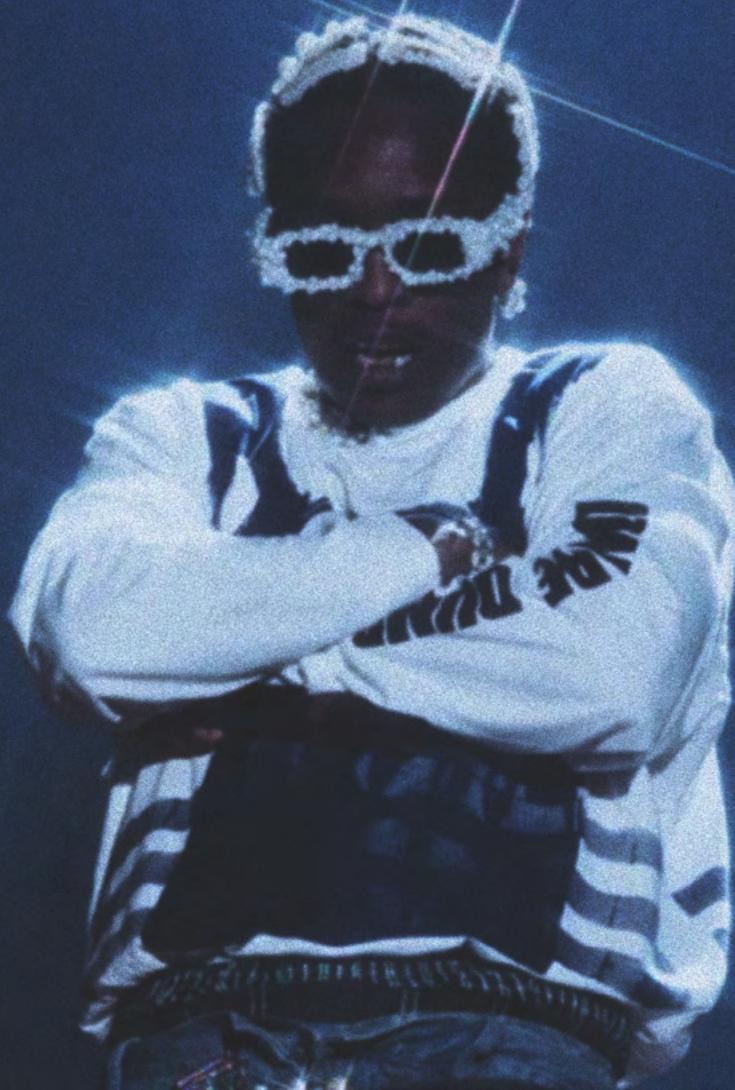
그렇다고 라기가 아예 음악을 등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TESTING> 이후, 그는 'TESTING'의 모토에 맞게 총 40개에 가까운 앨범에 (Feat. A\$AP Rocky)를 새겨 넣었다. 또한 정말 다양한 스타일의 앨범에 참여해 진정한 시도(Testing)을 보여주었다. 베테랑 이상의 거장들 Nas와 Black Thought, UK 드릴 래퍼 Fivio Foreign, 평소 친분이 깊은 Tyler, The Creator, 아예 힙합의 범주를 벗어난 Swedish House Mafia 등 각기 다른 스타일의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들에게 러브콜을 받아 수많은 킬링 벌스를 생산했다는 것은 팬들에게 필히 희비가 교차하는 순간일 것이다.

또, 2건의 송사와 2건의 내한도 있었다. 첫 번째 내한은 <TESTING> 투어의 일환으로 한국을 찾아 공연을 한 것으로, 과거 모 방송사의 시상식에 참여한 후로 약 7년 만의 방한이다. 두 번째는 구찌의 '경복궁 쇼'를 위해 한국을 찾은 일이다. 그는 쇼의 애프터 파티를 진행했으며 이후 동묘를 찾아 빈티지 의류를 쇼핑하고, 비디오를 찍어가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라기는 이 기간 동안 범죄에 연루되기도 했다. '스웨덴 사건'으로 알려진 일이 대표적이다. 악에 취해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자신들을 쫓아다니던 무리를 폭행한 죄로 스웨덴에 구금되었지만 현재 가장 뜨거운 정치인, 도널드 트럼프 前 대통령의 도움으로 석방되어 스웨덴에서 자선 공연을 하기도 했다. 또 하나의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라기가 자신의 친구의 장례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주장하는 A\$AP Relli의 손에 총격을 가한 혐의로 그는 현재 조사를 받고 있으며, 첫 번째 재판은 10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다.

누가?

관련된 소식들에 의하면 <DON'T BE DUMB>은 올스타급 프로듀서들이 총출동한 보기 드문 앨범이 될 예정이다. 평소 라키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Metro Boomin과 Tyler를 필두로, 이미 선공개 싱글 "RIOT (Rowdy Pipen)"으로 이름을 올린 Pharrell Williams, 일명 '신스 깎는 노인' Mike Dean, Madlib과 같은 거물들이 이름을 올리는가 하면, 이미 공연을 통해 공개된 "GRIM FREESTYLE"과 선공개 싱글 "HIGHJACK"을 프로듀싱한 Hitt Kid, 이제는 라키와 계약을 맺은 관계가 된 ICYTWAT과 Kelvin Krash가 자신들의 색을 뽐낼 예정이다. 이외에도 Hit-Boy, Skepta가 프로듀서로 합류할 수 있음을 공지하기도 했다. 피쳐링 멤버로는 Lil Yachty와 Miguel이 이미 선공개 싱글로 공개됐으며, 밴드 The Smith의 프론트맨 Morrissey, Westside Gunn, Tyler, Playboi Carti, Rick Ross가 추가로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가장 최근엔 J. Cole을 피쳐링 멤버로 불러들여 Drake에게 보내는 디스 트랙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지지부진된 디스전에 뒤늦게 끼어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이목이 쏠리는 곳은 이제는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된 리아나의 참여 여부이다. 라기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Beats와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항상 내 파트너와의 협업을 즐기지'라 말하거나, 리아나에게 보내는 세레나데로 화제를 끌었던 "D.M.B"에 '내 애 엄마와 새로운 협업'이라는 구절을 집어넣은 것을 감안할 때, 리아나가 라키의 새 앨범에 등장할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인다.



무엇을?

<DON'T BE DUMB>은 선공개 트랙들만으로도 자신을 과시하고, 상대방을 바보로 만들지만 한 편으론 떠나간 이들을 기리기도 한다. 거친 삶의 명암을 모두 반영했던 앞선 앨범들과 동일한 길을 가는 것을 선언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쩌면 살면서 처음으로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감옥에 수감된 탓에 라키는 어머니와 보호시설을 떠돌았고, 그에게 랩을 알려줬던 친형이 살해당하는 일을 겪기도 했다. 아버지가 출소한 후 가족들과 성공의 기쁨을 나누는 것도 잠시, 2012년엔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정규 2집, <AT.LONG.LAST.A\$AP>을 작업하던 시기엔 자신의 성공에 지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던 Yams를 떠나보냈다. 징크스처럼 연속적으로 비극적인 사건을 겪은 라키는 3집 <TESTING>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이별을 받아들이고, 또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러므로 4집, <DON'T BE DUMB>은 안정적인 환경을 갖춘 채 발매하는 첫 번째 앨범이 될 예정이다. 선공개 곡만으로 기존과 유사한 구성을 갖춘 사실은 확인되었으니, 이제 행복을 찾은 라키의 캐릭터가 앨범 내에서 어떤 식으로 발현됐을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다.

달라질 것은 내용뿐만이 아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라키는 작년 7월, <DON'T BE DUMB>에 지분이 있는 프로듀서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그중, 라키의 새로운 모습을 담당할 프로듀서는 Mike Dean과 The Alchemist이다. Mike Dean은 "M's" 이후로 약 10년 만에, The Alchemist는 공식적으로는 처음 합을 맞추게 되었다. 각자의 개성이 뚜렷한 프로듀서들이기에 라키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하게 하며, 최근 공개된 스니펫엔 레이지의 신스를 활용한 트랙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DON'T BE DUMB>은 정말 온갖 힙합 사운드의 총집합체와도 같은 앨범이 될 예정인 것이다.



언제?

2018.05.25. '3집, <TESTING> 발매'

그 이름처럼 기존의 스타일과는 다른 음악들로 채운 작품으로, 라키는 이 앨범을 전환점으로 삼았다. 하지만, 다음 작품이 이리 오래 걸릴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2019.07.03. '스웨덴에서 체포된다.'

Smash 페스티벌에 참여하기 위해 스웨덴에 방문한 라기는 약에 취한 남성들과 시비가 붙었고, 이들을 폭행한 죄로 체포되었다. 이내 체포되어 감옥에 구금되었으며 당시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개입으로 약 1달이 지난 8월 2일에 미국으로 돌아왔다.

2021.08.20. The Lyrical Lemonade Summer
Smash에서 "GRIM FREESTYLE"을 공개하다.

<DON'T BE DUMB>에 수록될 것으로 예상되는 곡 중, 라기가 가장 먼저 끼내든 것은 "GRIM FREESTYLE"이다. 이후, 라기는 이 트랙을 자신의 등장곡으로 활용하며 발매되지도 않은 곡으로 떼창 유도를 하고 있다.

2022.05.05 "D.M.B." 발매

<DON'T BE DUMB>의 첫 번째 선공개 곡이자, 리아나에게 보내는 세레나데로 큰 화제를 끌었다.

2022.12.02 "Shittin' Me" 발매

라키와 협업한 <니드 포 스피드: 언체인드>의 테마곡이자 두 번째 선공개곡이다.

2023.01.18. "Same Problems?" 발매

세 번째 선공개곡으로, 발매 약 한 달 전 아마존 뮤직 라이브를 통해 먼저 공개됐다. 라이브 중 스크린에 세상을 떠난 래퍼들의 사진을 배치했으며 Yams의 8주기에 맞춰 발매됐다.

**2023.07.20. "RIOT (Rowdy Pipen')" 발매,
Beats 인터뷰**

Pharrell Williams가 Nirvana의 "Smells Like Teen Spirits"를 샘플링해 프로듀싱한 트랙이며, 얼마 뒤 태어난 자신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Riot'이라 짓기도 했다. 또한 같은 날 비디오 제작을 협찬한 Beats에서의 인터뷰가 공개되었고, <DON'T BE DUMB>에 참여한 프로듀서 명단과 리아나와의 협업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2024.06.22. AWGE의 첫번째 컬렉션 'American Sabotage'

라키의 첫 컬렉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이내 본업으로 돌아가겠단 선언을 했다. 그 이름이 <DON'T BE DUMB>, 발매일은 2024년 8월 30일이다.

힙합 속 컬러리즘

Featured

힙합 속 컬러리즘

SNXO

"문화는 피부색이 아닌 혈통에 의해 계승된다." 이 말은 틀렸다. 적어도 힙합에서는 말이다.
힙합은 미국인의 문화가 아니다. 흑인의 문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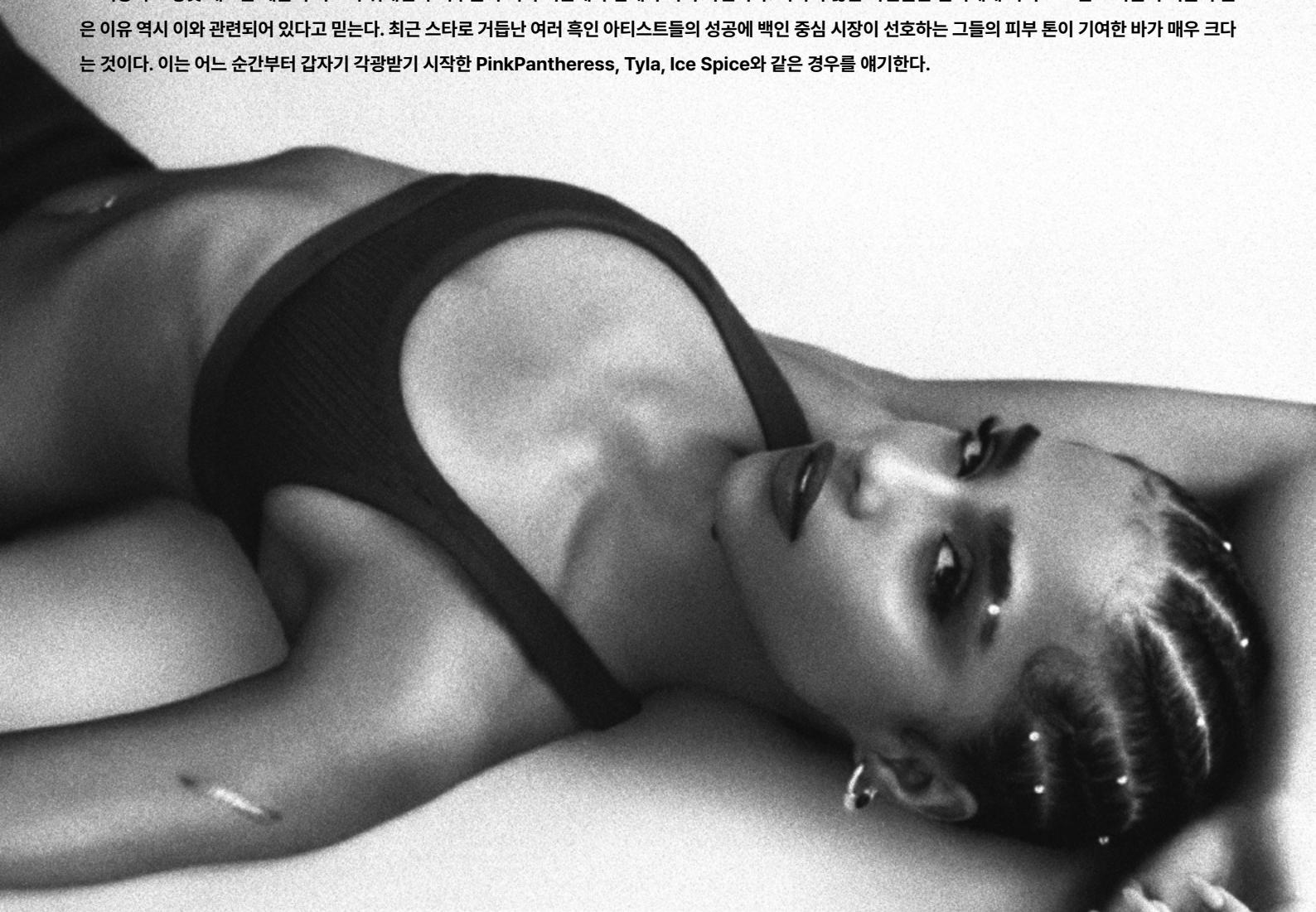
"The blacker the berry, the sweeter the juice (열매는 어두울 수록 더 달콤한 법.)"
Kendrick Lamar - The Blacker The Berry(2015) 中

투치(Tutsi)와 후투(Hutu).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르완다를 식민지로 삼게 된 벨기에는 국가 내 여러 부족들의 연합을 막기 위해 이들을 크게 두 부족으로 분할하여 통치하였다. 바로 자신들과 비슷한 체격의 투치 족에게 특혜를 몰아주어 식민지 내에 분쟁을 조장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잔인한 통치 방식은 미국의 노예제도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른 이들에 비해 백인과 조금이나마 더 가까운 피부색의 흑인들은 어두운 피부의 흑인들보다 비교적 나은 대우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근거는 노동과 체벌의 강도 그리고 실내 화장실의 여부 등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

흔히 라이트 스킨(Light-Skinned)이라 불리는 밝은 피부의 흑인들은 사실 백인 혼혈의 여부와 무관하게 태어나기도 한다. 멜라닌 색소 부족 혹은 먼 과거의 조상의 혈통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기에 당연히 피부색의 어두움 정도로 흑인 사회에서의 위상이 달라지는 경우는 당시까지만 해도 흔한 일이 아니었다. 문제는 시대가 흐르며 발생하기 시작했다. 백인들이 흑인 여성 노예들을 겁탈하여 태어난 혼혈 아이들의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게 되고, 백인들이 자신의 피가 섞인 자녀들을 대놓고 편애하며 차별을 두기 시작했다. 그렇게 흑인 사회 내에 만연하던 기존 라이트 스킨들과 백인 혼혈들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밝은 피부색의 흑인들에 대한 혐오가 뿌리 깊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이것이 흑인 사회가 라이트 스킨들을 '백인'으로 취급하게 된 계기이다.

필자가 캐나다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던 2010년대 중후반, 라이트 스킨들의 사회적 이미지는 잔인하리만큼 바닥을 찍고 있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모든 라이트 스킨들은 게이 같으며 백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며 조롱하는 맴이 유행을 했던 것. 흑인이 많은 동네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적 불문 모든 학생들에게 라이트 스킨들은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여겨졌다. 라이트 스킨들이 걷는 방식, 입는 옷, 그리고 듣는 노래까지 희화화하는 이 맴은 곧 특정 다수에서 소수로 타깃을 좁혀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탄생한 맴이 모두가 아는 그 유명한 "Drake the type of guy" 맴이다.

애석하게도, 흑인들의 라이트 스킨 혐오엔 모순적인 면이 존재한다. 이들에게 혐오의 대상은 오로지 남성뿐이다. 라이트 스킨 여성의 밝은 피부색은 언제나 강점으로 부각될 뿐, 조롱의 요소로 여겨지는 경우는 없다. 북미 음악 시장의 수뇌부들은 여전히 상당수 백인이며 가장 잘 팔리는 음악은 여전히 흑인 음악이다. 그리고 어느 시장이 그렇듯 새로운 제품이 나오기 위해선 수뇌부들의 여러 기준에 부합해야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많은 흑인들은 음악계에 라이트 스킨 스타들의 비율이 높은 이유 역시 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믿는다. 최근 스타로 거듭난 여러 흑인 아티스트들의 성공에 백인 중심 시장이 선호하는 그들의 피부 톤이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각광받기 시작한 PinkPantheress, Tyla, Ice Spice와 같은 경우를 얘기한다.



2013년 어두운 피부의 여성들은 빨간 립스틱을 바르면 안 된다는 시대착오적 발언으로 논란이 됐었던 A\$AP Rocky를 필두로 Lil Wayne, 2 Chainz, Future 와 Kodak Black 같은 수많은 어두운 피부의 래퍼들이 가사와 인터뷰를 통해 라이트 스킨 여성이 자신의 성적 취향이라 밝힌 바 있으며, "흔혈이 없었다면 성인 물에 나올 여성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업기적인 발언을 한 Ye와 같은 래퍼도 존재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흑인 남성에게 라이트 스킨 여성은 최고의 이상형이자 성적 대상이다. 라이트 스킨 남성은 진정한 흑인이 아니지만 라이트 스킨 여성은 최고의 흑인 여성이라는 역설. 다크 스킨 남성으로서 겪은 고충을 노래하지만 다크 스キン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시스템의 구조엔 누구보다 앞서 동참하는 모순. 누군가는 이를 보고 백인의 배타적 사고방식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You the Black messiah wifin' up a mixed queen (자신이 흑인 메시아라더니 혼혈 여자를 아래 삼네)"

"Michael was prayin' his features would change / So people believe that he's actually white (마이클 잭슨처럼 외모가 변하길 원하네, 사람들이 자신을 백인이라 믿어주길 바라며)"

Drake - Family Matters (2024) 中

흑인 사회가 라이트 스킨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는 북미의 힙합 씬이 드레이크(Drake)를 대하는 방식을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아역 배우로서 입지를 다진 후 업계에서 어린 흑인 배우들이 겪는 부조리를 풍자하기 위해 촬영한 그의 캠페인성 사진은 Pusha T의 디스곡 "The Story of Adidon"의 커버로 사용되어 아직까지도 '흑인이 아닌' 그가 흑인을 조롱하기 위해 찍은 사진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Childish Gambino의 메가 히트곡 "This Is America" 또한 프로덕션 초 기엔 드레이크를 향한 디스곡이 될 예정이었으나 추후에 미국 사회와 흑인 인종차별을 비판하는 노래로 발전되어 발매되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드레이크인 것일까.

근본적인 문제는 라이트 스킨과 다크 스킨들의 문화적 경험의 폭과 관련되어 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나 미국의 휴스턴에서 커리어를 쌓은 드레이크. 2006년부터 시작된 그의 음악은 댄스홀과 알앤비, 뉴올리언스의 바운스, 하우스부터 UK 드릴까지 모든 장르를 넘나든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토론토, 영국, 휴스턴을 비롯한 자메이카 억양을 적재적소에 섞어가며 사용하는 그의 음악적 특징은 누군가에겐 장르에 따라 청각적 만족도를 증폭시키는 탁월한 장치로 들리기도, 누군가에겐 타인의 문화를 베끼는 파렴치한 면모로 보이기도 한다. 넓은 폭의 큐레이션과 보다 열린 마인드의 컬처 흡수력. 과거 백인들의 문화를 더욱 밀접한 공간에서 접하며 거부감 없이 자라온 라이트 스キン들의 역사적 성질이기도 하다.

2024년 상반기를 뜨겁게 달군 드레이크와肯드릭 라마(Kendrick Lamar)의 디스전 중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바로肯드릭 라마가 드레이크를 흑인 사회의 일원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드레이크가 15년간 메인스트림 래퍼로서 이룬 모든 성과들은 언제나 흑인의 업적으로 여겨졌다. 그와 동일하게 중산층 기정에서 백인 어머니 아래에서 자란 오바마 전 대통령의 당선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이번 디스전을 계기로 드레이크는 어느새 아비한 '백인'이 되었다. 이번 디스전 중 Rick Ross의 디스곡 "Champagne Moments"와肯드릭의 "euphoria"에서 공통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바로 드레이크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들은 드레이크를 '흑인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는 백인'이라고 부르며 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 성형 수술을 받았을 것이라 밝히기도 한다.



교도관 출신으로 자신과 어떠한 연줄도 없던 마야왕의 이름을 따와 거리의 삶을 노래하는 Rick Ross의 뻔뻔한 아이러니는 둘째치고, "Complexion (A Zulu Love)"과 같은 노래에서 컬러리즘을 비롯한 수많은 흑인 사회 내 존재하는 이중성을 현란하게 비판해온 켄드릭 라마가 드레이크를 공격할 무기로 그의 피부색을 택했다는 점은 다소 의외의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켄드릭은 언제나 진실된 페르소나로 수많은 흑인들에게 존경을 받아왔고, 그의 예각적인 언어는 흑인 사회의 모든 입체적인 각들을 대변해왔다. 그렇기에 켄드릭이 드레이크와의 디스전을 래퍼 대 래퍼가 아닌 흑인 대 백인이라는 구도로 조각했다는 점은 분명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 사실이라면 비판받아 마땅한 그의 사생활을 뒤로하고, 아티스트로서의 드레이크는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저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흑인으로 정의했으며, 자신만의 흑인 커뮤니티 안에서 자라왔다. 단, 그것이 켄드릭이 정의한 흑인 사회와 달랐던 것뿐이다.

필자에게 21세기의 흑인 멘탈리티를 정의하라면 조심스럽게 배타적 문화 소유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다. 걸으론 누구보다 흑인의 인권과 문화를 위해 싸우지만 내부에선 진정한 흑인을 가려내기 위해 싸우며, 심지어 이에 대한 기준은 그리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같은 흑인이라도 피부색에 따라 'N-word' 사용에 제약을 두며, 그 단어 사용의 가능 여부를 이용해 자신들을 타 그룹보다 우위에 위치시킨다. 흔히 '게토'라는 단어 대신 사용하는 '후드'라는 표현 또한 마찬가지이다. 후드는 나의 고향, 또는 동네를 나타내는 'neighborhood'에서 파생된 표현이다. 그리고 '나'의 동네는 그 어느 나라에도, 어느 문화에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젠 비흑인으로서 후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문화적 전유(Cultural Appropriation)을 외친다.

자칭 자유의 예술이라는 힙합은 사실 매우 폐쇄적인 문화이다. 미국인의 문화가 아닌 흑인의 문화라 외치지만 정작 이들이 수용하는 흑인의 기준은 그 어떤 기준보다 폐쇄적이다. 흑인에게 희망과 위로를 준다 말하지만 받는 이는 한정되어 있다. 오로지 흑인들을 위한 음악을 만든다면 '백인 같은 흑인'의 음악을 비하하지만, 애초에 현대 힙합 음악의 소비자 대다수가 백인이라는 사실 역시 유명한 이야기이다. 흑인으로 태어났지만 나의 흑인다움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 사회. 이것이 과연 이들이 추구하는 공동체의 정체성이 맞을까? 과연 이것이 흑인을,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지키는 방법일까? 제3자로서 던진 설부른 마침표들을 뒤로하고 존경과 아쉬움을 담은 물음표와 함께 글을 마친다.



Editors' Picks



Iceage
<You're Nothing + 2>



Los Campesinos!
<All Hell>



TRACKS

1. Ecstasy / 2. Coalition / 3. Interlude / 4. Burning Hand / 5. In Haze / 6. Morals / 7. Everything Drifts / 8. Wounded Hearts / 9. It Might Hit First / 10. Rodfæstet / 11. Awake / 12. You're Nothing / 13. To The Comrades / 14. Jackie

by Editor 김상주의

TRACKS

1. The Coin-Op Guillotine / 2. Holy Smoke (2005) / 3. A Psychic Wound / 4. I. Spit; or, A Bite Mark in the Shape of the Sunflower State / 5. Long Throes / 6. Feast of Tongues / 7. The Order of the Seasons / 8. II. Music for Aerial Toll House / 9. To Hell in a Handjob / 10. Clown Blood/Orpheus' Bobbing Head / 11. kms / 12. III. Surfing a Contrail / 13. Moonstruck / 14. 0898 HEARTACHE / 15. Adult Acne Stigmata

by Editor SRUKSAN

보통 경력이 쌓이고, 어른이 된 뮤지션에겐 음악적으로도 성숙함과 노련미가 돋보이기 마련이다. 이는 흔히 포용적인 자세와 안정적인 균형감으로부터 나온다. 덴마크 펑크의 현재를 담당하는 아이스에이지(Iceage)의 음악에도 그러한 과정이 잘 보인다. 클래식을 향한 예우, 혁신가로서의 실험,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자기애라는 벤다이어그램의 정중앙에 대해 골몰하는 사이에, 더 많은 팬들을 만나며 이후 아방가르드와 팝의 적절한 균형을 찾기 시작한다. 그것이 현재까지 아이스에이지의 일대기에 대한 가장 명료한 한 줄 요약일 것이다. 그러나 가끔 그들의 완숙한 면모를 즐기다가도, 눈에 봄는 게 없는 듯한 패기와 충동이 그리워지는 때가 있다. 이는 2집 <You're Nothing>을 더욱 찾게 되는 이유일 것이다. 특히 초기 하드코어를 향한 그들의 충실햄 사랑은 당시의 또래 동료들에게도, 지금의 자신들에게도 좀처럼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러면서도 <Interlude>의 서사적 연출, <Morals>의 묵직한 서정성, Joy Division을 보는 듯한 어둡고도 날카로운 실존 철학 등으로 하여금 포스트 펑크로서의 입체적인 매력도 이들의 현재 행보에 대한 전율적인 복선처럼 느껴진다. 어쩌면 Elias가 그 어느 때보다 나르시시즘과 허무주의에 심취해, 지금보다 훨씬 과격하게 비틀대던 날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성숙이 더 빛나 보이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모(Emo), 특히 American Football로 대표되는 미드웨스트 이모(Mid-west Emo)라는 장르는 조금만 빼끗하면 청자의 공감을 사기 어려운 장르다. 어쭙잖게 너드 흉내만 내려는 가짜들이 이 바닥에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 웨일스의 한 중견 인디 밴드가 예상치 못한 사운드를 직조하며 소리 소문 없이 해당 장르를 부흥시키고 있다. 여러 가지 주제가 혼재된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앨범 발표 7년 후 더 이상 짚지만은 않은 이들을 지배하며 근본적으로 <All Hell>을 둘러싸고 있는 감정은 불안이다. 밴드는 이런 암울한 세계를 묘사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쓴다. 7번 트랙 "The Order of the Seasons"의 가사, '행복은 확실치 않지만, 불행은 보장되어 있어.'가 이를 대변한다. 이들은 브렉시트, 트럼프주의 등의 정치적 소재를 이따금 꼬집으며, 자본주의의 체제 하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하지만 <All Hell>의 감동적인 지점은 — 이런 거친 현실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존재를 가장 중시하며 실존적 삶에 관한 서술을 담담히 이어나간다는 것이다. 에로스보다 플라토닉, 개인주의보다 공동체주의. 어찌 보면 교조적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없는 가치를 그리워할 수 밖에 없는 듯 하다. 게다가 미드웨스트 이모, 꽤나 낭만으로 충만하지 않은가?

Remi Wolf
<Big Ideas>



Vylet Pony
<Girls Who Are Wizards>



TRACKS

1. Cinderella / 2. Soup / 3. Motorcycle / 4. Toro / 5. Alone in Miami / 6. Cherries & Cream / 7. Kangaroo / 8. Pitiful / 9. Wave / 10. When I Thought Of You / 11. Frog Rock / 12. Just the Start / 13. Slay Bitch (Bonus Track)

by Editor SRUKSAN

TRACKS

1. Girls Who Are Wizards / 2. The Story of DJ Goober / 3. The Queen is Back / 4. The Wizard of Wubz (Wub Anthem) / 5. There's a Menu Theme Nestled Within Us All / 6. Musicians of Ponyville (Horse Friends Pt. 3: Return of the Dreaded Vy Scratch?) / 7. Reflected in the Eyes of the Cavern Lurker / 8. Creature City / 9. Potion Seller / 10. Sacred Dragon / 11. Battle! Against the Banished Sorcerer Knight, Stinklebug / 12. Facing Oblivion to Become the Lode Star / 13. In the Name of Friendship

by Editor SRUKSAN

Remi Wolf의 가장 특출난 점은 아마 재기발랄함이 아닐까 싶다. 3년 전 발매한 *<Juno>*에서의 그 평키함이란! 알앤비(R&B)와 신스 펑크(Synth Punk) 등 다양한 장르가 혼재되어 만들어진 그녀의 독특하고도 키치한 세계는 데뷔 앨범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리스너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로부터 3년 뒤 발매된 *<Big Ideas>*는 여전히 독창적인 모양새를 띠지만, 평키함보다는 록기한 사운드로서 다소 의외의 선택일지라도 충분한 매력을 발산해낸다. 1번 트랙, "Cinderella"부터 예사롭지 않다. 언급한 *<Juno>*의 세계를 그대로 차용하는 동시에 부기(Boogie) 사운드로 깊이감을 더한다. 거기다 코러스를 세 구간으로 분화하여 곡의 구조에 짜임새를 더했으며, 동시에 빼어난 멜로디 라인을 직조해 내는 실력이 더해져 곡의 풍부함을 한 층 더 살아나게 한다. 이후 앨범의 움직임은 기묘하게 전환되는데, 곧바로 다음 트랙, "Soup"부터 어딘가 노스탤지어한 인상으로 전개된다. "Cinderella"로 초장부터 꽉 조여놨던 더미에 바람이 점차 빠져서일까. 각 개별 트랙의 파워 역시 상당하지만, 긴장감은 덜하다는 점이 못 내 아쉽다. Remi Wolf의 웃장에 여러 가지의 웃이 새롭게 추가되었지만 — 그녀의 음악으로 에너지를 얻고 삶을 즐겼던 개인적인 팬으로서, 풋풋한 그녀 역시 그립다. 여전히 엉뚱하긴 해도!

커버만 보고 도망치지 않길 바란다. 소위 브로니 아티스트라고 불리는 Vylet Pony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12년 간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해온 — 이미 힙스터들 사이에선 유명한 전자음악가다. *<Girls Who Are Wizards>*는 일종의 헌사다. 한창 EDM 부흥 시기에 성행했던 수많은 시그니처 사운드, 하우스(House), 덥스텝(Dubstep) 등과 같은 소위 브로스텝이라고 통칭되는 장르를 선물세트마냥 풀어버리는데 — 동시에 현 세대의 싸구려 맛까지 챙긴다. 말 그대로 앨범을 청취하는 내내 순수한 재미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Skrillex, Martin Garrix, Zedd 등을 듣던 그때 그 시절을 그저 얄팍하게 재현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은 약 1시간이라는 과도하게 긴 러닝 타임 덕택에 몰입감이 증대됨에 따라 역설적으로 부정된다. 앨범 내내 반복되는 'The music never stops, no'라는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듯이, 정확하게 중간 지점에서 앰비언트 트랙으로 양분되는 앨범은 다시 그 쾌활한 질주를 이어나간다. 전자음악을 역시나 잘 다루는 Vylet Pony는 EDM 장르를 다시 2024년 현대에 소환해냄과 동시에, 해당 장르의 팬들이라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탁월한 일렉트로닉 음반을 탄생시켰다. 다시 한 번 음지에서!

Porter Robinson
<SMILE! :D>



White Ward
<Love Exchange Failure>



TRACKS

1. Knock Yourself Out XD / 2. Cheerleader / 3. Russian Roulette / 4. Perfect Pinterest Garden / 5. Year of the Cup / 6. Kitsune Maison Freestyle / 7. Easier to Love You / 8. Mona Lisa / 9. Is There Really No Happiness? / 10. Everything To Me

by Editor 자카

TRACKS

1. Love Exchange Failure / 2. Poisonous Flowers of Violence / 3. Dead Heart Confession / 4. Shelter / 5. No Cure for Pain / 6. Surfaces and Depths / 7. Uncanny Delusions

by Editor BlackMatter

<SMILE! :D>는 포터 로빈슨 (Porter Robinson)의 디스코그래피에서 가장 이질적인 작품이다. 전작 <Nurture>에 비해 인디트로니카가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때로는 일렉 기타를 사용해 신디사이저 사운드와 록의 요소를 결합해 놀라운 트랙들을 만들어낸다. 본작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다채로운 모습들을 여감 없이 보여주었다는 것일 테다. "Knock Yourself Out XD"는 비트팝의 영향을 받은 캐치한 트랙이고, 폭발적인 신스 사운드를 사랑하는 "Cheerleader"는 가히 올해 최고의 노래 중 하나라 칭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하다. 지금껏 보여주었던 스타일과 상당히 다른 "Easier To Love You:"는 역시 그러한 변화가 무색할 만큼 아름답고, 앨범의 클로저 "Everything To Me" 또한 유사한 방식으로 순수한 사랑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일부 비평지는 "여전히 훌륭하지만,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스타일과 개성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며 본작을 비판했다. 그러나 그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고 보아도 <SMILE! : D>는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며, 앞으로의 커리어를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해낸 작품이다. 포터 로빈슨과 <SMILE! :D>는 2024년을 다시 한 번 물들이고 있다. Bitch, I'm Taylor Swift!

양분화, 기계화, 혐오, 흑백사상, 황금만능주의, 자연파괴, 획일화, 산업화. 시대 유감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무한한 사랑의 교환이 간절했던 시대, 우리는 이에 실패했다. 남은 건 치유되더라고 사라지지 않는 흉터와 깊은 내면에서 태어나는 공허한 아픔뿐. 이 모든 것에 저항하기 위해, 음악은 여러 형태를 거쳐왔다. 때로는 평크로, 때로는 힙합으로, 또 때로는 아이돌 밴드의 음악까지도. 하지만 그 어느 형태도 화이트 와드(White Ward)의 <Love Exchange Failure>와 같은 감정의 골을 구현해내지는 못한 것 같다. 블랙 메탈과 다크 재즈를 섞은 독창적인 음악을 선보이는 밴드 화이트 와드는 이 독특한 조합을 통해 분노와 공허감을 털어내려 한다. 양 극단은 어느 한 곳에서 필연적으로 만난다 했던가, 이 극단적 과격함과 극단적 서정성의 만남은 너무나 완벽했다. 블랙 메탈 중에서도 포스트 블랙 메탈과 블랙게이즈의 성격을 띠는 연주는 특유의 공간감과 멜로디컬함으로 인해 재즈와 혼연일체로 흘러나간다. 이 위에 적절히 믹싱된 스크리밍 보컬 또한 감정의 전달을 극대화 시켜주는 데 일조하고, 포스트 메탈/블랙게이즈의 보컬이 흔히 그렇듯 공간감을 사용해 보컬에 쓸리는 과한 집중을 피하며 거부감을 줄인다. 시대에 대한 유감스러움을 표현하지만, 그 자체론 전혀 유감스럽지 않은 앨범이다.



Cigarettes After Sex
<X's>



TRACKS

1. X's / 2. Tejano Blue / 3. Silver Sable / 4. Hideaway / 5. Holding You, Holding Me / 6. Dark Vacay / 7. Baby Blue Movie / 8. Hot / 9. Dreams From Bunker Hill / 10. Ambien Slide

by Editor BlackMatter

섹스 후의 담배. 달아오르는 쾌감 이후 찾게 되는 진정의 쾌감은 언제나 만족스럽다. 그러나 얼마나 큰 즐거움을 안겨주고 얼마나 사랑하나에 관계 없이 처음 그 쾌락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다. 오히려, 더 큰 자극이 없는 반복적인 행위에 대한 공허만 느껴질 뿐이다. 이름에 걸린 저주일까, *Cigarettes After Sex*의 음악은 이 단점을 너무나 뻔하게 답습한다. 데뷔 앨범인 *셀프타이틀* 앨범 이후, 이들의 작품은 항상 공통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아니, 어쩌면 첫 앨범에도 적용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몽환적인 슬로우코어 드림팝이 가져오는 아름하고 매혹적인 아름다움은 몇 번의 재생 이후 그 어떤 새로움도 가져오지 못하며, 미성으로 중얼거리듯 뱉는 가사들은 하나의 추가적인 사운드 그 이상의 감흥도 전달하지 못한다. *<X's>* 또한 마찬가지다. 이 앨범에 담긴 소리들이 아름답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 거짓이다. 그러나 첫 EP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반복된 정형화된 아름다움일 뿐이다. 이곳에서 치명적 단점이 모습을 드러낸다. 인간은 쾌락에 적응하고, 반복되는 동일한 쾌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어쩌면, 이들의 다음 앨범도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RAY
<Gre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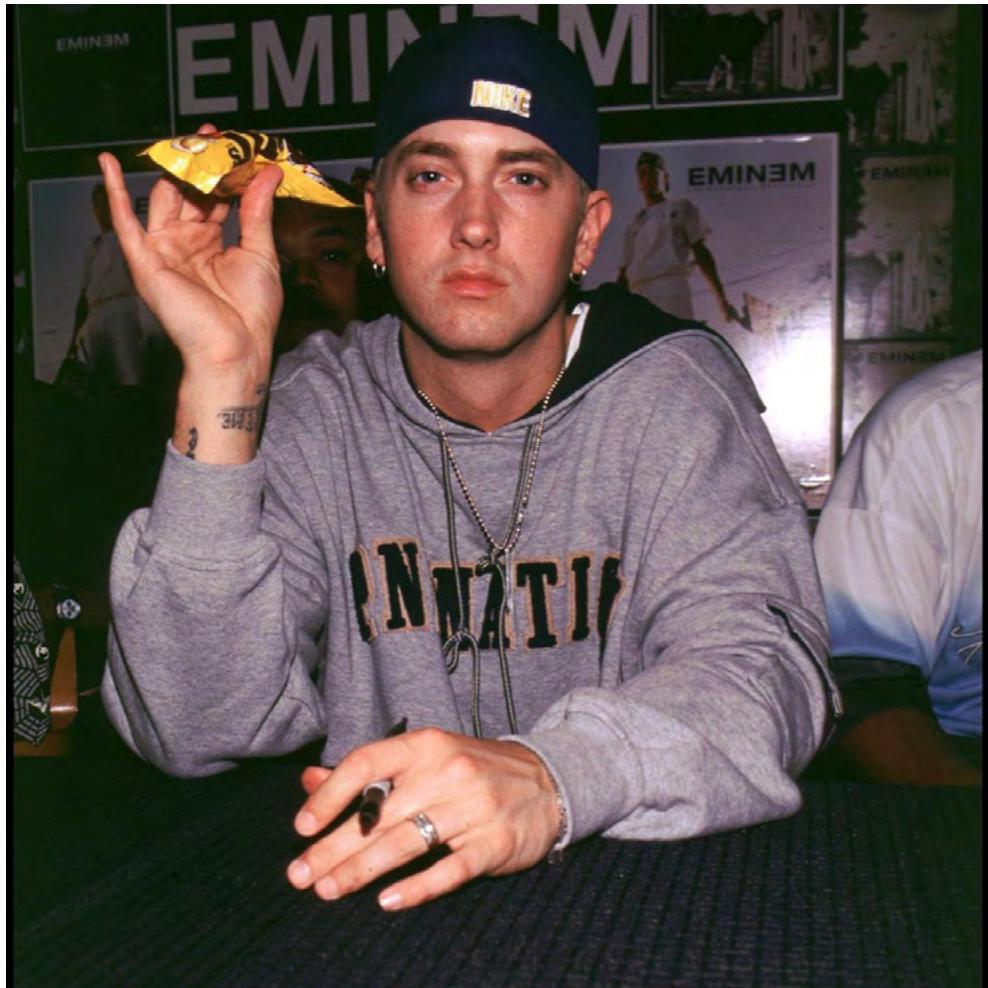
TRACKS

1. Gyakkou / 2. I Swim At Night / 3. Gravity / 4. Moon Palace / 5. Test / 6. 17 / 7. Skyline / 8. Koharuhi / 9. Rusty Days / 10. Reignation / 11. Toumeingen / 12. Shiduka No Umi / 13. Where Did Our Love Go? / 14. Night Bird / 15. Rusty Message / 16. Message

by Editor BlackMatter

수분을 머금은 것들은 아름답다. 수채 물감으로 물든 종이도, 축축한 새벽의 내음도, 이슬이 맺힌 꽃잎도. 흐릿한 형체 또한 대체로 아름답다. 맑은 하늘에 떠있는 몽글몽글하고 새하얀 구름도,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필름 사진도. 꽈나 역설적이게도, 소음 또한 아름답다. 헤드폰에서 흘러나오는 과격하면서도 난해한 노이즈가 만들어낸 현실과 분리된 또 하나의 세계가 우리의 고막 속에 맷힐 때의 아름다움, 이것이 필자가 노이즈를 사랑하는 이유다. 이 세 가지 아름다움의 삼위일체가 음악으로 재림한 것이 바로 슈게이즈다. 그리고, 일본의 지하 아이들 그룹 RAY의 슈게이즈는 여기에 한 가지의 아름다움, 즉 인간이 가지는 외형의 아름다움을 더한다. 슈게이즈에 덧입혀지는 안무와 슈게이즈와 최상의 시너지를 선보이는 여성의 보컬이 뱉어내는 일본어의 가사가 가지는 독특한 이점을 제외하고도, *<Green>*이 마음 속 깊이 박혀드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이 예술을 추구하고 또 소비하며 끊임없이 발전시켜온 이유, 즉 매혹적인 아름다움이 흐릿하고 축축하며 난해한 기타의 굉음 속에도 너무나 뚜렷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Recently Released**

감상주의, 자카, SRUKSAN, BlackMatter,
SongChico, denim, SNXO

Full-Length Album Review

moogsick, 자카, 감상주의, denim,
ryuzimoto, Indie Aisle, SRUKSAN

Classic Album Review

예리, denim

Featured

moogsick, SongChico, SNXO

Editors' Picks

감상주의, SRUKSAN, 자카, BlackMatter

Design

ikidkekwi



HAPPY BIRTHDAY TO W/HOM!

예리

하 이 슬 기 당 장 구 독

자카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으하핫

온암

그러니까 전역하려면 제가 지금까지 여기 있었던
만큼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상주의

낭만주의 캐에첼 방범대 빠이야~!

ryuzimoto

과지모토, 오카모토, 류지모토

공ZA

공 : 공자 결혼 함
자 : 자녀 계획 아직 없음

SNXO

가을에 파넥도 드레이크 합작 많관부.. ☺
사랑합니다

Indie Aisle

1년이 되게 빠르구나

SongChico

1년이 지나고 떠나간 사람도, 새로운 사람도,
있지만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늘 보내주시는 과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denim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BlackMatter

항상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쟈이즈

모두의 열정과 사랑과 노력으로 W/HOM도
창간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에디터와 독자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애들아 1년동안 수고했고
나중에 웃으면서 보자!

SRUKSAN (*NEW IN!)

신입 스룩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잇!

moogsick (*NEW IN!)

힙합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ikidkekwi

지난 1년 동안 HOM과 W/HOM을 번갈아가면서 디자인 작업을 맡은 ikidkekwi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이번 호가 KHL과 함께하는 마지막 작업이 되었는데요, 함께 멋진 작업을 할 수 있었어서 즐거웠습니다.

긴 시간동안 함께 달려와주신 팀원 분들과 잊지않고 매거진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W/HOM 8월 호, 마침.